

# 1500차 수요시위 자료집

## 연대의 힘은 바위처럼 강하다

1992년 1월 8일에 시작하여  
2021년 7월 14일 1500차를 맞이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시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위  
#1500차수요시위 #연대의힘은바위처럼강하다

### 1500차수요시위 다시보기

정의기억연대 유튜브  
[https://youtu.be/SPB\\_2GfHpcE](https://youtu.be/SPB_2GfHpcE)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 1500 차 수요시위 목차

1500 차 수요시위 다시 보기 .....	2
행사 요약.....	2
성명서(한/ENG/日).....	10
1500 인 공동주관인 명단 .....	17
1500 인 공동주관인의 15 자 메시지.....	22
<나와 수요시위> 에세이 공모 선정작 모음.....	29
초등 .....	29
고등 .....	38
일반 .....	43
해외 .....	58
<나와 수요시위> 에세이 공모 참가작 모음.....	71
초등 .....	71
해외 .....	80



1500 차 수요시위 다시 보기

행사 요약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500 차 수요시위**  
**-1500 인이 주관하는 1500 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연대의 힘은 바위처럼 강하다-**

- 일 시 : 2021 년 7 월 14 일 수요일 오후 12:00 - 13:30 (사전 퍼포먼스 11:20~11:50)
- 주 최 : 정의기억연대
- 주 관 : 1500 차 수요시위와 함께하는 1500 인
- 장 소 :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 사 회 : 강혜정 이사

순서	출연자
사전홍보 1인시위	
여는 공연 <바위처럼>	평화나비네트워크
1500차 수요시위 영상	
할머니 말씀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
정의연 경과보고	이나영 이사장
연대발언	-문춘하 렌나 수녀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소속 예수의 까 리따스수녀회 서울관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구보경 스프링세계시민연대(미국 휴스턴 함께맞는비 대표) -김지원 고등학생
<새물> 율동	춘천지역 근현대사 역사 연합동아리 날갯짓
수요시위 에세이 '나와 수요시위' 수상작 발표	김민건(초등학생), 이윤서(미국 고등학생), 마쓰무라 노리코(일본)
연대영상	
연대발언	
성명서 낭독	이나영 이사장
마무리 퍼포먼스	

■ **종합안내**

- 한국어: <https://bit.ly/34szdUN>
- English: <https://bit.ly/3fQUv3B>
- 日本語: <https://bit.ly/34mENIc>

## ■ 생생소식

150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이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인시위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최, 주관은 정의기억연대가 했으며 사회는 정의연 강혜정 이사가 보았습니다. 모든 영상은 온라인으로만 송출하였고 그동안 평화로에서는 정의연 활동가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여는 노래 <바위처럼> 울동은 평화나비네트워크에서 보내주신 영상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1500차 수요시위 영상을 본 후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이면서 열심히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시는 이옥선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문춘하 렌나 수녀(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소속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서울관구),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구보경(스프링세계시민연대(미국 휴스턴 함께맞는비 대표)), 김지원(고등학생) 님의 연대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지역 근현대사 역사 연합동아리 '날갯짓'에서 보내준 <새물> 울동 영상과 국내 단체들에서 보내주신 연대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수요시위' 에세이 공모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김민건 학생, 밀알두레학교 이서현, 이소현, 조한나 학생, 고등학생 이상엽 학생, 김포제일고 김다음 학생, 일반 김경린 님, 박경주 님, 박미라 님, 이태희 님, 임계재 님, 전지윤 님, 해외 미국 이윤서 님, 일본 마쓰무라 노리코 님, 방청자 님 이렇게 15분이 선정되었고 그중 초등 김민건 학생, 해외 이윤서 고등학생, 일본 마쓰무라 노리코 님의 에세이를 정의연 활동가들이 읽었습니다.

이어 해외 여러 단체에서 보내주신 연대영상을 본 후 이나영 이사장의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150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1500차 수요시위를 알리는 사전 행진 퍼포먼스는 코로나 방역 4단계로 종로에서 평화로로 오는 길에서 1500차 사전홍보 1인시위로 변경하여 평화나비네트워크가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참가자들과 함께 신나게 진행하려고 했던 우산 퍼포먼스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정의연 활동가들이 진행하여 영상으로 송출하였습니다.

1500인이 주관하는 1500차 수요시위에 총 14개국(대한민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567명(개인, 단체, 국회의원)이 주관인으로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캡처하여 SNS에 공유하시면 추첨을 통해 나비배지를 드립니다.

또 유튜브 생중계에 약 500분이 참여해 주셨고 댓글로 240여 분이 함께하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강새봄, 강쓰TV, 강은숙, 강제동원공동행동, 강타고도, 겨레하나, 공정한사회, 곱아론스릉한다, 곱호남, 글맹이TV, 김다니, 김명준(몽당연필), 김미희, 김반달, 김보민, 김선임, 김옥선, 김재하(한국진보연대), 김준겸, 김준식, 김지선, 김지혜(한국진보연대), 김진갱, 김진경, 김진영Kim Jinyoung, 김채윤, 김철민, 김초롱초롱, 김춘식(용인), 김태진, 김현(겨레하나), 김현주, 김형남(한국진보연대), 김형주, 김효은, 남수민, 남자김성득, 농구놀이, 니케에게미소를, 다음주에휴가닷, 대학생겨레하나, 도토리, 동네사람, 든든산, 똑심평온, 류수연(몽당연필), 몽당연필(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박남식, 박다원, 박은덕, 박준영, 박지은, 박진희, 배기남, 배은경, 벳바, 베찌맘, 벳티영미, 벳티영미, 북적북적, 불린콩, 빈빈, 빨간 머리 앤(해운대겨레하나), 뿌Boo, 뿌규(울산 겨레하나), 서민영, 세정, 소정, 송영경(진보대학생넷 성공인천지회), 송영경(평화나비 연합지부), 수원여성회, 수원평화나비, 신동혁空, 신민철, 심야k tv, 아콩알, 안김정애,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알마즈, 여울, 와우굿, 우동희, 우순덕, 우토로평화기념관(우토로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 울산맘, 울산여성회, 원주영강교회교회학교, 유경, 유대현(인천대), 유키(한국진보연대), 윤삼성[송신여자중학교], 윤정원, 이경주, 이경희(마창진시민모임), 이남남, 이도, 이민준(강제동원 공동행동), 이영미(한국여성신학회), 이영헌, 이용훈, 이원석, 이은령, 이제리스, 이지수, 이태준(국민대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세움'), 이현주, 이혜진, 이훈렬, 이희선, 임계재, 임미정salus(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분과 위원회), 입니다별, 자인, 잘한다 투쟁, 장남들 보전 시민모임 PESJ, 장혜영, 전국여성연대, 정보키, 정수연, 정은주(겨레하나), 정의당박인숙TV, 조안구달, 조진희, 조혜미, 좋은세상, 지윤·u·, 진마음, 진수영, 진형탁, 짱이짱, 차가운핫썸코, 채연, 청년B, 초코조아, 최경자, 최용빠, 최은영, 최재숙, 평화평화, 포카, 한경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금희, 한미경, 한성원, 현장의소리., 황미란, 황애정, 황우승, 회대 고은결, 회대\_박준형, Ae Ran Suh, Annachoi, Arim Lee, artcore artn, Atlanta Sewol(미국 애틀란타), bakkehime, belovedKHchoi(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Byung Hee Lee(시드니), Byung Jo Kang, Byung Jo Kang, Christine, DJ Kim, Elizabeth Hyunsook Cho, eojin kim, eungyeong GIM, EUNJUNG JO, Eunsook Jeon(호주 시드니), eyouth e, Felix, Fluorine, Forever Panda,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 시소연, Genie

Mooni, Goo Lee(미국 시애틀), GY K.Y., Han Kim, Hana Lee, hanbeet rhee, HANI KANG, hanul27, Hyekyung Park(몽당연필), Hyeryung Chang, Hyeyoon Faith Chung(미국 시카고, KAN-WIN), Hyun Choi(캐나다 오타와), Hyunju Bae, hyunsook yu, ILBASSO, IM J, isunflower70(김포), Izumi S, Jacques Y. Jeon, Jae Won Yoo, Jae Young Lee, jihyeong kim(몽당연필), Jinhwan Boo, jiyun jun, joan son, John, Joo Lee(자카르타촛불행동), JUSEOK KIM, Kijeong Nam(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Kijung Hong, KIN KIN(지구촌동포연대), KWAU한국여성단체연합, Kyung Joo Park, Lee Hae sol, leemikyung2014, Mankon Kim, mean J, Meri Joyce, michaelyooosb, Mirea Joe, Misu Cho, Misun Kim, Moses J Hahn(호주 시드니), MyungHee Yoon, Na-Young Lee,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Pia Nam, Rebekah Jaung(뉴질랜드), Ruth Sangree, S. H, Seung il Kim, Sewol Hambi Houston, sh Lee, shinjoo cho, sn lee, Soona Cho, Steve Byeol, Sung Sohn, sunny kwon, suyoun jung, taeim kim, Unsun Lee(여신협,여신협과 한국신연구소 이은선), Vegit\_illustr, Woohee Kim, Yeon Hee Lee, Yj Lee, yoonmi KIM, Youngsun Cho, yu seung Oh, 璉李, ちょんすん(조정순) 님 고맙습니다.

음향을 진행해 주신 휴머니지먼트 감사합니다.

공동주관인으로, 연대발언으로, 에세이 공모로, 15자 메시지로, 연대영상으로, 문화공연으로, 현장 사진과 영상 촬영 자원활동으로, 사전홍보 1인시위로, 온라인 댓글로, 음향으로 1500차 수요시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 영상 다시 보기>> 정의기억연대 유튜브

-1500차 수요시위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PB\\_2GfHpcE](https://www.youtube.com/watch?v=SPB_2GfHpcE)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500번의 외침, 1500th voice:

<https://youtu.be/0bxEai14r8o>

-이옥선, 이용수 할머니 인사말씀: <https://youtu.be/EHh-FI1lth8>

-국내 연대영상: <https://youtu.be/b6goprRbli8>

-해외 연대영상: <https://youtu.be/rC-ZXXwqSoY>

-국내,해외 연대영상 FULL: <https://youtu.be/J1Lsl4C5KQg>







성명서(한/ENG/日)

## 제 1500 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위, 세계에서 가장 슬픈 시위,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위가 1500 차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염원이 차곡차곡 쌓인 현장,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희망이 합창으로 울려 퍼진 현장,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연대가 전 세계 릴레이로 연결된 현장, 오늘 우리는 이곳 평화로에 1500 번째 모였습니다.

1992년 1월 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가들과 회원단체 여성 십여 명이 모여 첫 번째 수요시위를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함께했고,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종교인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정대협 회원단체들과 연대단체들은 단체별 치열한 활동 속에서도 힘을 모아 돌아가며 수요시위를 주관하였습니다. 점점 많은 단체, 학교, 동아리, 모임 등에서 수요시위를 주관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유발언을 하며 문화공연을 하며 함께 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이 다른 피해생존자들을 만나고, 할머니들과 청소년들이 만나며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한 의지를 공유했습니다. 성별, 나이, 종교, 인종, 국적을 초월한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을 한결같이 요구해 왔습니다. 100 차, 1000 차를 지나 1500 차가 되는 동안 수요시위는 명실상부 공감의 장, 소통의 장, 연대의 장, 평화의 장, 미래세대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 겹겹의 시간, 고통과 슬픔을 딛고 의연히 일어난 피해자들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좌절과 아픔으로부터 물러나지 않고 공감과 사랑으로 연대해 주신 세계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반목과 갈등, 정쟁과 이념에 굴하지 않고, 인권과 평화를 노래하며 묵묵히 이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500 번의 외침을 무시하고 불법 강점과 전쟁범죄의 책임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죄와 반성 대신 역사를 지우고 돈을 내밀어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전시성폭력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방해하고 평화비 철거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며 그나마 했던 작은 약속마저 뒤집으며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역사부정세력은 온갖 거짓과 왜곡을 일삼으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문제해결 운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시민들이 평화에 대한 의지를 차곡차곡 쌓아올릴



때,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수요시위를 중단하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평화로를 끄찍한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성인권과 생명은 분쟁 상황뿐 아니라 일상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성착취의 피해를 입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타자들은 배제와 주변화, 폭력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1500 번 같은 외침이 반복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정부가 성노예제를 중대한 반인도적, 반인권적 범죄로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인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식민지와 전쟁, 군국주의와 남성중심주의를 넘어설 때, 비로소 평화의 새 장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과 평등, 신뢰와 연대의 물결이 혐오와 차별, 두려움과 분노를 뒤덮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1500 번을 이어온 바위처럼 강한 연대의 힘으로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1500 차 수요시위에 함께하는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하나, 일본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역사교과서에 기록하여 교육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추모관과 사료관을 건립하라!

2021 년 7 월 14 일

제 1500 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500 주관인 일동(14 개국 1,565 인)

## **1500<sup>th</sup> Wednesday Demonstration for Just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Statement**

The longest, saddest, and proudest demonstration in the world has reached its 1500<sup>th</sup>.

We have gathered for the 1500<sup>th</sup> time here at Peace Road today, at the site where the most desperate wishes have accumulated, where the strongest hope has echoed in chorus, and where the strongest solidarity in the world has been connected around the globe.

On January 8, 1992, a dozen of staff from the Korean Council and women from member organizations gathered for the first Wednesday Demonstration. Victims joined, students participated, and religious people have joined forces. Member organizations of the Korean Council and solidarity organizations have joined forces to co-host the Wednesday Demonstration amid their intense activism. More and more organizations, schools, student clubs, and groups started hosting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More people shared their solidarity speeches and undertook cultural performances. Victim-survivors met other victim-survivors, and halmonis met youth who shared their common will for a world without war. Numerous citizens around the world have raised their voice together for the same cause regardless of gender, age, religion, race, and nationality. They have continued to call for acknowledgement of war crimes, investigation of the truth, official apology, legal reparation, punishment of perpetrators, education in history textbooks, and commemoration in memorials and archives. As the Wednesday Demonstration surpassed its 100<sup>th</sup> and 1000<sup>th</sup> to reach its 1500<sup>th</sup>, it had become a space of empathy, communications, solidarity, peace, and education of future generations.

We thank the victims for their courage in coming forward and stepping up amid the sufferings, pain, and the layers of time. We also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those who have stood here with us, singing human rights and peace and not yielding to antagonism, conflict, political strife and ideology.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ignores the 1500 shouts and neglects the responsibilities of illegal occupation and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Rather than apologizing and repenting sincerely, it has erased history and put forth money, insulting the victim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regressing more and more, disrupting solidarity with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blatantly pressuring the removal of the Statue of Peace, and reversing even the small promises it made.

History denialists continue all kinds of falsities and distortions, attack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and the movement for resolution. While citizens for justice have continued to build towards peace, the denialists are threatening for an end to Wednesday Demonstration with language of hate and discrimination. They are defaming the victims, spreading fake news about activists, and turning Peace Road into a horrifying battlefield. Even today, women's human rights and life are being threatened not only in armed conflicts but also in everyday life. People are victimized under sexual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traumatized with horror and anxiety, and suffer under stigmatization. We still live in a world wher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cannot even reveal their names publicly.

This is why the same voice should be repeated 1500 times. This is why we should not just stay alive, but live to fulfill the duties of the life given to us.

Redress for victims will be achieved and their human rights will be guaranteed only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s sexual slavery as grav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lfill its legal responsibilities. When we all surpass colonization, war, militarism, and androcentrism, a new space for peace will open. Only when the waves of love and equality, trust and solidarity cover hatred, discrimination, fear and anger, will a true democratic society come.

We will stand at this site with the power of solidarity like a rock that has persevered through 1500 times.

We, the participants of the 1500<sup>th</sup> Wednesday Demonstration, demand the following:

On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admit war crimes!

On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investigate the truth!

On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officially apologize to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On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make legal reparations!

On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punish those responsible!

On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educate the issue in history textbooks!

On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memorials and archives!

July 14, 2021

1500 Co-organizers of the 1500<sup>th</sup> Wednesday Demonstration for Just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1,565 citizens from 14 countries)

## 第 1500 回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定期水曜デモ記者会見声明書

世界で最も長く続いてきたデモ、世界で最も悲しいデモ、世界で最も誇らしいデモが 1500 回目を迎えました。

世界で最も切なる願いが一つ一つ積み重なった現場、世界で最も強烈な希望がアンサンブルになって鳴り響く現場、世界で最も強い連帯が世界中にリレーで繋がった現場。今日私たちは、ここ平和路に 1500 回目集まりました。

1992 年 1 月 8 日、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のために、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の活動家たちと会員団体の女性十数人が集まり、第 1 回目の水曜デモを行いました。ここに被害者たちが合流し、学生たちが参加し、宗教家たちが力を合わせました。

挺対協の会員団体と連帯団体は、それぞれの熾烈な活動の中でも力を合わせて、交代で水曜デモを主管しました。だんだん多くの団体、学校、サークル、集まりなどが水曜デモを主管し、多くの人々が自由発言や文化公演に参加してきました。被害生存者たちが他の生存者と出会い、戦争のない世界に向けた志を共有しました。性別や年齢、宗教、人種、国籍を超えて、たくさんの世界市民が心を一つにして声を上げてきました。

戦争犯罪の認定、真相究明、公式な謝罪、法的賠償、責任者処罰、歴史教科書への記録、追悼碑と資料館の建設を

一途に求めてきました。第 100 回、第 1000 回を経て第 1500 回に至るまで、水曜デモは

名実共に共感の場、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場、連帯の場、平和の場、未来世代の教育の場になってきました。

そのような時間が重なったいく中、苦しみと悲しみを踏み越えて毅然として立ち上がった被害者たちの勇気に私たちは感謝しています。挫折や痛みから引き下がることなく、共感と愛をもって連帯して下さった世界市民のみなさんに感謝しています。反目や葛藤、政争や理念に屈することなく、人権と平和を歌いながら、黙々とこの場を守って下さった全ての方々に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

しかし、日本政府は 1500 回の叫びを無視し、未だに不法的な強制占領や戦争犯罪の責任から目をそらしています。真の謝罪と反省の代わりに、歴史を消してお金を差し出すことで被害者たちを侮辱しました。戦時性暴力の被害者たちとの連帯を妨害し、平和碑を撤去させるために露骨に圧迫し、微弱な約束さえも覆して後退に後退を重ねています。

歴史否定勢力はあらゆる嘘と歪曲で日本軍性奴隷制被害者と問題解決運動を攻撃しています。正義ある市民たちが平和への意志を積み重ねている時、ヘイトや差別の言葉で水曜デモを中断しろと脅迫しています。被害者の名誉を損ない、活動家に関する虚偽の事実を流布することで、平和路を悲惨な戦場に変えています。

今も女性の人権と生命は、紛争状態だけでなく、日常の中でも脅かされています。性暴力や性搾取の被害を受け、不安と恐怖に悩まされながら、烙印を押されて苦しんでいます。社会的弱者と他者は排除と周辺化、暴力と差別の対象になっています

。

未だに私たちは、日本軍性奴隷制被害者が自ら名乗り出ることすらできない世の中を生きています。

それが、同じ叫びを 1500 回繰り返さ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です。ただ生きているだけでなく、私たちに与えられた義務を果たしながら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です。

日本政府が性奴隷制を重大な反人道的・反人権的犯罪であると認めて法的責任を果たす時、被害者の名誉は回復され、彼女たちの人権も保障されるはずです。私たち全員が植民地や戦争、軍国主義や男性中心主義を乗り越える時、新しい平和の場が開かれるはずです。愛と平等、信頼と連帯の波がヘイトや差別、恐怖や怒りを覆う時、真の民主主義社会が到来するはずです。

その日が来るまで、私たちは 1500 回も続けてきた「岩のように強い連帯の力」でこの場を守っていきます。

第 1500 回水曜デモに参加した私たちは、もう一度以下の 7 つの事項をを要求します。

- 一つ、日本政府は戦争犯罪を認めよ
- 一つ、日本政府は日本軍性奴隷制問題の真相を説明せよ
- 一つ、日本政府は日本軍性奴隷制被害者に正式に謝罪せよ
- 一つ、日本政府は日本軍性奴隷制被害者に法的賠償せよ
- 一つ、日本政府は日本軍性奴隷制犯罪の責任者を処罰せよ
- 一つ、日本政府は日本軍性奴隷制問題を歴史教科書に記録して教育せよ
- 一つ、日本政府は平和碑と史料館を建設せよ

2021 年 7 月 14 日

第 1500 回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定期水曜デモを主管する 1500 人の主管者一同 (14 か国 1565 人)

1500인 공동주관인 명단

총: 14 개국 1,567 인(대한민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개인 11 개국(대한민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1,351 명

강경란, 강남식, 강동오, 강문순, 강미, 강미영, 강민수, 강민정, 강병열, 강보경, 강서현, 강석주, 강선미, 강성채, 강성현, 강신후, 강양희, 강예진, 강우성, 강정숙, 강제권, 강준원, 강지유, 강지정, 강진희, 강한비, 강현옥, 강현옥, 강혜란, 강혜정, 강혜정, 강혜진, 강희옥, 고명인, 고서연, 고영주, 고은경, 고은비, 고은지, 공경자, 공미해, 광경아, 광미경, 광성준, 광은정, 광은희, 구자숙, 구준형, 국세현, 국슬기, 권말선, 권미경, 권미정, 권성희, 권수현, 권순자, 권신윤, 권오광, 권은혜, 권찬영, 권현우, 금경애, 기은서, 김 수야, 김가람, 김가람, 김가영, 김가혜, 김가희, 김강, 김경미, 김경민, 김경아, 김경영,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 김공래, 김관영, 김광수, 김교성, 김교성, 김기홍, 김나경, 김나경, 김나현, 김난희, 김남숙, 김남정, 김남정, 김남정, 김다빈, 김다음, 김단비, 김달수, 김대욱, 김대준, 김덕영, 김도형, 김동균, 김동미, 김동은, 김동한, 김란희, 김명길, 김명수, 김명숙, 김명숙, 김명준, 김무성, 김문주, 김미경, 김미경, 김미영, 김미정, 김미정, 김미정, 김미희, 김미희, 김민경, 김민수, 김민아, 김민아, 김민아, 김민영,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중, 김별님, 김보경, 김보라, 김보민, 김보민, 김보영, 김삼수, 김삼숙, 김상범, 김상욱, 김상희, 김서경, 김서현, 김석호, 김선도, 김선미, 김선민, 김선실, 김선아, 김선임/KIM SUN IM, 김선재, 김선정, 김선희, 김성갑, 김성미, 김성수, 김성수, 김성아, 김성연, 김성우, 김성욱, 김성원, 김성은, 김성일, 김성현, 김성희, 김세진, 김세호, 김소영, 김소형, 김송은, 김수빈, 김수산나, 김수아, 김수원,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향, 김수현, 김수혜, 김수희, 김수희, 김순애, 김스림, 김승균, 김승태, 김시은, 김신, 김신아, 김신영, 김아정, 김아진, 김애진, 김양임, 김양준, 김어진, 김언경, 김엘림, 김영란, 김영민, 김영석, 김영수, 김영신, 김영옥, 김영옥, 김영주, 김영주, 김영환, 김영희, 김예림, 김용은, 김용희, 김우빈, 김우희, 김웅규, 김웅호, 김원선, 김유경, 김유미, 김유미, 김유승, 김유진, 김윤경, 김윤구, 김윤덕, 김윤섭, 김윤옥, 김은경, 김은숙, 김은숙,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종, 김은희, 김은희, 김응규, 김의종, 김인수, 김인애, 김인태, 김일하, 김재동, 김재은, 김정기, 김정대, 김정목, 김정수, 김정수, 김정숙, 김정숙, 김정슬기, 김정연, 김정우, 김정현, 김정훈, 김제이, 김제택, 김종건, 김종익 Kim Jong Ik, 김종현, 김주영, 김주희, 김준기, 김지선,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한, 김지현, 김지형, 김지혜, 김지혜,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 KIM, JI-HUN / 金智勳, 김진갑, 김진규, 김진숙, 김진숙, 김진아, 김진영, 김진옥, 김진우, 김진표, 김진혁, 김진홍, 김진희, 김진희, 김찬주, 김창록, 김채운,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민, 김초롱, 김태균, 김태임, 김태주, 김태중, 김태현, 김태희, 김판수, 김하경, 김하나, 김하중, 김학수, 김한민, 김한울, 김해경, 김해선, 김해슬, 김향미, 김현진, 김현규, 김현미, 김현석, 김현선, 김현수, 김현숙, 김현숙, 김현숙, 김현아, 김현주, 김현주, 김현진, 김현하, 김혜연, 김혜원, 김혜지, 김호숙, 김호연, 김홍미리, 김홍선, 김황경산, 김희열, 김희인, 김호비, 김효성, 김효은, 김효정, 김효정, 김희경, 김희라, 김희정, 김희정, 김승현, 나승구, 나정복, 나지현, 나화연, 남기정, 남기현, 남명수, 남미영, 남유선, 남의영, 남희 유, 노동선, 노숙영, 노순택, 노주희, 노현성, 류경완, 류다솔, 류재근, 류정애, 류제수, 류지형, 류한솔, 류후남, 리화수, 림구호, 맹형찬, 모니카김, 목소영, 문경애, 문기돈, 문명준, 문성식, 문승유, 문인자, 문정윤, 문종순, 문지선, 문진영, 문채호, 문홍석, 민규식, 민선홍, 민소현, 민아름, 민강, 박경수 Francis, 박경조, 박고은, 박광중, 박광집, 박광천, 박근조, 박기혁, 박길동, 박길선, 박남식, 박다현, 박덕신, 박래균, 박미경, 박미숙, 박미숙, 박미정, 박민관, 박민정, 박상준, 박세봄, 박석용, 박석현, 박선미, 박선아, 박선화(엘리), 박성원, 박성울, 박성재, 박성지, 박세빈, 박소라, 박소연, 박소진, 박수영, 박승배, 박승복, 박승호, 박신안, 박영만, 박영민, 박영민, 박영인, 박예찬, 박욱기, 박완신, 박왕욱, 박용규, 박우현, 박은경, 박은미(Eunmee, Park), 박은우, 박은진, 박은희, 박인숙, 박인숙, 박인숙, 박재욱, 박재준, 박재현, 박정숙, 박정순, 박정은, 박정환, 박정훈, 박정희, 박종근, 박종기, 박종현, 박종환, 박준, 박준규, 박준영, 박준형, 박준형, 박지선, 박지수, 박지욱, 박지은, 박지현, 박진, 박진교, 박진영, 박진우, 박진희, 박찬식, 박찬진, 박채연, 박하늘, 박하은, 박현상, 박현선, 박현수, 박현화, 박형순, 박형준, 박혜경, 박혜란, 박호근, 박홍섭, 박효정, 반윤정, 방승원, 방정환, 방효창, 배경률, 배기남, 배문기, 배미영, 배수홍, 배영란, 배영미, 배은경, 배장렬, 배재국, 배지숙, 배진경, 배해리, 백광현, 백남주, 백남해, 백범석, 백숙희, 백승일, 백시진, 백영규, 백은지, 백지윤, 백지윤, 변자형, 변정목, 변증현, 부식최, 사공업, 사이화, 서경렬, 서병철, 서상원, 서선화, 서승중, 서연경, 서영혜, 서옥희, 서유리아, 서찬민, 서혜은, 선애진, 성명옥, 성미래, 성미선, 성은정, 성현주, 성효숙/Sung Hyo\_Sook, 소담이, 소민준, 소연실, 소정, 소혜란, 손 해진, 손균자, 손미희, 손미희, 손성문, 손월자,

손지연, 손지은, 손화정, 송기호, 송도자, 송문주, 송미령, 송미례, 송민주, 송별아, 송성영, 송승헌, 송아름, 송영경,  
 송영심, 송원근, 송원근, 송유리, 송은주, 송지원, 송진원, 송학현, 송현정, 송현주, 시민분, 柴洋子, 신가희, 신갑철,  
 신박진영, 신병륜, 신보경, 신성희, 신승대, 신아영, 신예린, 신예슬, 신예호, 신은옥, 신재욱, 신정애, 신창기, 신채연,  
 신청이, 신현규, 신현아, 신호성, 신희영, 심경화, 심규협, 심규홍, 심모을, 심미성, 안김정애, 안나, 안다영, 안무니,  
 안민경, 안민욱, 안봉혜, 안상모, 안선영, 안소현, 안수경, 안수영, 안승순, 안에서, 안윤정, 안정인, 안중선, 안지중,  
 안진걸, 안치원, 양기석, 양다솜, 양두승, 양미강, 양민주, 양선희, 양운기, 양준혁, 양중근, 양지호, 양진훤, 양향목,  
 양향목, 양희연, 양희찬, 어정희, 엄미화, 엄윤상, 엄하나, 엄현정, 여현주, 연윤실, 예한나, 오겨인, 오경진, 오광석,  
 오달샘, 오도원, 오세욱, 오세중, 오수미, 오연재, 오영주, 오영주, 오예린, 오유승, 오윤심, 오윤희, 오은주, 오준석,  
 오진아, 오찬상, 오태길, 왕혜리, 왕혜리, 용마루, 우유리, 우준하, 우현재, 원민경, 원선옥, 원지우, 원형섭, 원혜인,  
 위정희, 유광석, 유국환, 유다형, 유룻, 유리라, 유명환, 유미란, 유민정, 유선근, 유성식, 유성혜, 유세라, 유소라, 유연창,  
 유원진, 유일영, 유정희, 유정희, 유지우, 유지희, 유진규, 유진상, 유진수, 유철인, 유현숙, 유혜원, 윤다솜, 윤명환,  
 윤명희, 윤미연, 윤병민/Yoon Byung-Min, 윤삼성, 윤성은, 윤세정, 윤영묘, 윤영애, 윤영주, 윤옥주, 윤유진, 윤은영,  
 윤정모, 윤정원, 윤정원, 윤지현, 윤지희, 윤진원, 윤채영, 윤채원, 윤채은, 윤철우, 윤하늘, 윤혜경, 윤혜원, 윤홍열,  
 윤화영 아네스, 윤희준, 은성남, 이강서, 이경수, 이경숙, 이경숙, 이경아, 이경옥, 이경용, 이경주, 이경현, 이경현,  
 이경호, 이경희, 이계호, 이광욱, 이국명, 이권명희, 이규동, 이규호, 이규호, 이금숙, 이나리, 이나영, 이남식, 이단아,  
 이동금, 이동원, 이동화, 이득현, 이래형, 이래형, 이령경, 이루리, 이루카, 이명근, 이명수, 이명숙, 이명희, 이문상,  
 이미경,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미영, 이미일, 이미자, 이미정, 이민, 이민선, 이민수, 이민재, 이민지, 이민희,  
 이사라, 이상걸, 이상분, 이상희, 이새해, 이서영, 이석진, 이선경, 이선미, 이선애, 이선이, 이선호, 이선희, 이성복,  
 이성원, 이성재, 이성준, 이소라, 이소영, 이수경, 이수린, 이수린, 이수미, 이수빈, 이수빈, 이수인, 이수정, 이숙진,  
 이순애, 이순옥, 이슬기, 이승민, 이승희, 이승희, 이신남, 이아란(Lee Aran), 이아림, 이연아, 이연희, 이영국, 이영길,  
 이영분, 이영우, 이영주,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용기, 이용위, 이용재, 이용훈, 이원, 이원석, 이원수, 이유린, 이유정,  
 이윤경, 이윤서, 이윤수, 이윤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고양 YMCA 총무), 이윤, 이은령, 이은로, 이은영,  
 이은정, 이은정, 이은하, 이은혜, 이장근, 이재민, 이재연, 이재영, 이재왕, 이재웅, 이정득, 이정섭, 이정수, 이정숙,  
 이정연, 이정연, 이정원, 이정은, 이정환, 이정희, 이종국, 이종문, 이종숙, 이종채, 이주영, 이주영, 이주영, 이주현,  
 이주현, 이주형, 이주희, 이지송,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진용, 이진토, 이진하, 이찬민, 이창복, 이창환,  
 이창환, 이춘화, 이태준, 이태호, 이태희, 이택민, 이하나, 이하영, 이학수, 이한결, 이한빛, 이해성, 이해솔, 이향림,  
 이향원, 이현경, 이현서, 이현수, 이현숙, 이현주, 이현주, 이현혜, 이혜숙, 이혜원, 이혜주, 이혜진, 이호준, 이효정,  
 이훈렬, 이희선, 이희영, 이희예, 이희정, 임경희, 임계재, 임기병, 임두리, 임령진, 임무성, 임미정, 임미진, 임보라,  
 임상준, 임상일, 임상화, 임상화, 임선희, 임성은, 임수민, 임수아, 임수현, 임순광, 임승헌, 임옥영, 임윤옥, 임은경,  
 임재민, 임정상, 임지영, 임지호, 임진아, 임채민, 임태원, 임한숙, 임해광, 임효석, 임희선, 장근호, 장미, 장미현, 장병순,  
 장상민, 장상욱, 장소라, 장수희, 장승우, 장유리, 장윤정, 장윤정, 장정연, 장제은, 장주경, 장지영, 장창섭, 장철호,  
 장춘호, 장하진, 장한빛, 장혜령, 장혜영, 장혜욱, 장혜원, 장훈, 장희수, 재인, 전경민, 전경숙, 전광렬, 전덕용, 전병문,  
 전부선, 전비담, 전상하, 전숙희, 전승호, 전안진, 전영민, 전영민, 전예지, 전은지, 전의창, 전인수, 전정환, 전정훈,  
 전지윤, 전현정, 전현진, 전해리, 정경애, 정규영, 정나리, 정다인, 정대화, 정미래, 정미숙, 정미영, 정민기, 정민영,  
 정민영, 정민정, 정보라, 정봉영, 정비아, 정상일, 정새한, 정선옥, 정선호, 정세일/Jeong Seil, 정세훈, 정소영, 정소영,  
 정소영, 정수미, 정수연, 정숙자/Sook Ja Chung, 정슬기, 정신애, 정연훈, 정연훈, 정영은, 정예름, 정완근, 정유림,  
 정유진, 정윤경, 정윤미, 정윤서, 정윤진, 정은숙, 정은정, 정인교, 정일용, 정일용, 정재원, 정정엽, 정정환, 정종복,  
 정종훈, 정지선, 정지수, 정지영, 정진성, 정진아, 정진이, 정찬미, 정춘교, 정태효, 정푸름, 정하영, 정하준, 정한구,  
 정현경, 정현숙, 정혜승, 정혜실, 정혜열, 정혜원, 정혜정, 정혜지, 정혜진, 정화영, 정희연, 조강희, 조경준, 조경진,  
 조만식, 조명진, 조미애, 조미연, 조민지, 조선재, 조성순, 조성운, 조성태, 조성하, 조수영, 조수영, 조영래, 조영선,  
 조영숙, 조예림, 조오섭, 조용현, 조원호, 조윤진, 조은숙, 조은정, 조재령, 조정옥, 조종례, 조진희, 조한성, 조현경,  
 조현숙, 조형철, 조홍찬, 조희환, 조희승, 주서종, 주선혜, 주윤아, 주계준, 주홍, 지원, 지은주, 지은희, 진미리, 진민건,  
 진성준, 진수영, 진은경, 진인태, 진주, 차상근, 차우미, 차정신, 차정환, 차준석, 차지현(조안구달), 차희로, 채미라,  
 채분옥, 채성원, 채유림, 최강수진, 최경자, 최경희, 최광기, 최규희, 최단옥, 최도경, 최무영, 최미향, 최민선, 최민희,  
 최배만, 최병애, 최병유, 최보희, 최보희, 최봉태, 최부식, 최상구, 최성자, 최성희, 최세은, 최솔비, 최수경,

최수산나/Susannah Choi/, 최수상, 최슬기, 최슬기, 최승남, 최신명, 최연례, 최영민, 최영은, 최예린, 최은경, 최은영, 최은혜, 최은희, 최인석, 최재철, 최정민, 최정우, 최주, 최준혁, 최지운, 최지원, 최평호, 최한울, 최혜미, 최효준, 최희목, 추윤정, 탁혜경, 태경민, 태지영, 하성환, 하혁진, 한경아, 한경준, 한경희, 한국염, 한금희, 한덕균, 한만승, 한명희, 한미경, 한석희, 한선화, 한성원, 한송이, 한아름, 한옥자, 한왕근, 한은경, 한은주, 한준희 (Moses J Hahn), 한진, 한찬옥, 한혜진, 한희섭, 함경숙, 함민정, 함보배, 함수옥, 함예슬, 함효희, 허남호, 허두영, 허상수, 허연, 허윤범, 현순호, 현승은, 현연화, 현정호, 현필화, 홍군표, 홍기정, 홍두석, 홍두호, 홍서영, 홍선미, 홍성각, 홍성관, 홍성현, 홍승수, 홍영규, 홍윤신, 홍은하, 홍재선, 홍지은, 홍지은, 홍진숙, 홍진숙, 홍춘숙, 홍학심, 홍향임, 홍혜숙, 황경란, 황경환, 황모과, 황보희, 황순영, 황애정, 황연주, 황용광, 황윤정, 황은희, 황일현, 황준현, 황중호, 황진택, 황현주, 황혜진, Byung Hee Lee, DoHee Kim, Goo Lee, Ham hyun gyu, HO Jeong-Hwa, Hong sohye, Hwang Eui Dae, Hyunsook Cho, Jae-Eun Noh, Jay Yeom, Jeon Heyjin, Jeong Lee, Ji Young SHIN, Jongin Choi, Joo Young Lee, Justine, Katie Bathgate, Kelly Lee, KELLY LEE, Kyu seok lee, Meeyoung Kim, MICHAEL YUN, nariko iguchi, Na-Young Lee, ozawa kuniko, Park seung nam, Rebekah Jaung, Ruth Sangree, Ryota ISHIDA, Shin DongHo, Shin Dongsoon, Soona Cho, Sujin Yoo, Thomas Kim, Yeo dong Wook, yeseul, 리츨, 金富子, 大野京子, 稲葉真以 Inaba Mai, 梁澄子 양징자, 方清子, 森一女, 小野政美 ONO MASAMI, 松野尾かおる, 松村徳子 MATSUMURA Noriko, 野平晋作 (NOHIRA Shinsaku), 畑, 田中直子, 曹貞順(조정순), 中嶋有木, 中川加代子

**단체 11 개국(대한민국,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171 개 [대한민국 146 개]**

6.15 시민합창단, AOK, KIN(지구촌동포연대),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NARPI), 감리교 여선교회, 감리교회, 감리교회 여선교회 연합회, 강강슬래,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강원대학교 민주동문회,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 거래하나, 겹겹 JUJU Project, 경기 평화나비,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청소년평화나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대학생거래하나, 경험과상상문화예술협동조합, 공동선실현사제연대, 광명 YWCA, 광산구평화의소녀상시민모임, 광화문티비, 교사노조연맹, 교사러닝크루 TRC, 구로평화나비, 구분기생활경제연구소, 국민대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JPIC, 극단 고래,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여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김제평화의소녀상위원회,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노원여성회, 눈높이대교 노동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시농민회, 대전평화여성회,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 민교협,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송파지역연합회,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부산거래하나, 부산여성-엄마진보당, 부산여성회, 부산학부모연대, 복원중학교, 사)사랑나눔연대 안성지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 사단법인 익산여성의전화, 사월혁명회,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 청년광장,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포럼 / Life and Peace Forum, 서울 KYC, 성남평화의 소녀상지킴이, 성미산학교, 성심수녀회 (The Society of the Sacred Heart of Jesus), 세종여성회, 수원여성회, 수원평화나비,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성여성회, 여선교회, 여선교회 증부연회, 여성교회,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예수의까리따수녀회(서울관구), 오산평화의소녀상, 울산여성회, 원불교 평화행동,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율량중학교 동아리 유스티티아, 음성민중연대, 이화민주동우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신현고등학교 학생회 '해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평화나비, 일본군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정의실현경남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전교조 충북지부, 전교조교양초등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춘천농민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재단, 진보 3.0, 진보당 강서양천위원회, 진보당 도봉구위원회,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작 21 작가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춘천지역 근현대사 역사 연합동아리 '대학생 날갯짓', 커넥트 픽처스, 큐앤아이 (Q&I), 파주 YWCA, 팔레스타인평화연대/Palestine Peace & Solidarity in South Korea/韓国パレスチナ平和連帯, 페활랑(페미니즘 활동가 모임), 평화교육센터 평화아이뚜비뚜바, 평화나비 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포항여성회, 포항평화나비 청소년 지킴이단, 풍물구패 삶터,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WOMEN MINISTER'S ASSOCIATION OF PROK, 한국정보연구소, 한국언론미디어협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분과 위원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화경전문위원회, 한신민주동문회, 해남평화나비,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휴머니지먼트, 흥사단

**[일본 4 개]**

Peace Boat ビーサポート (도쿄), 일본군위안부문제 간사이네트워크 (오사카),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 Japan Nationwide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도쿄), 희망씨앗기금 希望のたね基金 Seed of Hope Foundation (KIBOTANE) (도쿄)

**[미국 10 개]**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Foundation (샌프란시스코), KAN-WIN (시카고), Speaking of War (산라몬), Statue of Peace Plaza Committee (필라델피아),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공감 One heart for Justice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행동 (애틀란타), 워싱턴 희망나비 (애난데일), 이야기꽃, 개간지 (리지필드), 함께맞는비 (미국 휴스턴/샌안토니오/오스틴/달라스/노르웨이)

**[캐나다 5 개]**

BC ALPHA (Association for Learning & Preserving the History of WWII in Asia) (밴쿠버), BC Association for Learning & Preserving the History of WWII in Asia (ALPHA) (밴쿠버), 미주지역 5.18 광주 민중항쟁 동지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빅토리아 (빅토리아),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사람들 (오타와)

**[독일 1 개]**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progressive korea

**[호주 3 개]**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시드니), 사단법인 호주한인교육문화센터 (KCC Inc.) (시드니),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 브리즈번 (브리즈번)

**[뉴질랜드 1 개]**

더 좋은 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Korean New Zealanders for a Better Future (오클랜드)

**[다국가 1 개]**

S.P.Ring 세계시민연대 (미국(휴스턴, 달라스, 샌안토니오, 오스틴, 인디애나폴리스)오스트리아(비엔나)독일(보훔)호주(시드니)뉴질랜드(오클랜드), 아일랜드(더블린), 노르웨이(오슬로)인도네시아(자카르타))

**국회의원 45 명**

권인숙,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김승남, 김영진, 김원이, 김정호, 김한정, 박상혁, 박완주,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송갑석,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정주,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용빈, 이원택, 이장섭, 이재정, 인재근,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종윤, 허영, 홍익표, 홍정민

1500인 공동주관인의  
15자 메시지

생생한 연대와 교육의 공간 수요시위! / 우리의 용기는 바위처럼 이어진다! / 역사,  
 기억, 연대, 교육 그리고 함께평화 / 천오백번의 외침은 바위처럼 강하다 /  
 평화로에서 평화를 지켜내는 우리들 / 지금도 일어나는 전시여성폭력그만  
 지금도 일어나는 여성차별안녕할때 / 천오백번의 외침, 일본정부는 들어라 / 꺼지지  
 않는 불씨만큼 강한 것은 없다 / 잊지않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우리들 / 수요시위가  
 끝나는 날이 찾아오기를 / 작은 날갯짓이 큰 변화를 일으키길 / 그 누구도 잊어서  
 안되는 그날의 진실. / 천오백명의 성평등과 평화의 한걸음 / 평화헌법 개정 막아서  
 전쟁없는 세상 / 사과받을 권리가 당연해 질 그 날을 위해 / 일본군'위안부'문제  
 자주적 해결촉구 / 수요시위는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 울고 웃던 기억이  
 쌓여있는 수요시위 / 1500 번의 날갯짓이 불러온 평화 / 수요시위, 1500 번의 정의의  
 역사 / 할머니들에게 정의와 희망을 바랍다 / 평화로운세상위해오늘도함께해요 /  
 할머니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 / 우리 역사를 잊지말고 기억해야 한다. /  
 일본에게사죄받을때까지함께해요 / 평화의 물결이 큰 파도가 되어 넘치길! / 우리는  
 기억하고 전하고 함께 합니다 /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 다함께  
 눈물을 닦고 평화의 세상으로 / 일본은 사과하고 책임지고 배상하라 / 잘못을  
 반성하는 인간과 내일을 맞자 /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의다! / 우리  
 여성들의 연대가 두려울 것이다. / 우리가 할 일은 잊지 않고 함께 걷는 것. / 역사의  
 정의를 회복함은 절대선이다 / 일본, 사죄할 기회가 천오백 번 지났다. / 일본정부는  
 사과하고 책임에 나서라 / 어떤 해결책보다 중요한 시민의 기억 /  
 아무리그래도절대로잊지않을거다 / 다음 생애는 아름다운 꽃처럼 피소서. / 역사의  
 정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 1500 회、未来への新たなスタート 1500 차, 미래를  
 향한 새로운 스타트 / 일본정부는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 / 1500 차 수요시위  
 응원합니다 / 승리는 포기하지 않는 연대로부터 / 28 년 길 위에서 외쳐온 평화의  
 함성! / 함께 쌓아 올린 시간 위에 이젠 내 차례 / 일본은 군국주의를 반성하고  
 사과해! /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 기록하고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여성인권과 평화 실현을 위한 연대 / 우리의 연대는 정의와 함께  
 승리한다 / 역사정의를 위해 할머니들께 명예를! / 피해자에게 정의를, 세상에는  
 평화를! / 잊지 않습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 일본은 만행에 대해 사과 및 보상하라  
 / 수요시위를 지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 수요시위 역사를 계속 이어 나갑시다 /  
 일본군의 성노예제 반드시 응징하자 / 수요시위가 끝나는 날을 고대합니다. / 정의와  
 인류 인권 실현 투쟁 발자취 / 세계는 변하는 데 일본은 변하지 않는다. / 2000 차  
 수요시위 전에 사과해라 / 낙수물이 돌을 뚫듯이 끝까지 갑시다 / 침묵은 우리를 더  
 단단히 만들 뿐이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다 /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까. / 日本を変えることが私たちの使命 일본을 바꾸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  
 평화의 나비가 날아오르길 희망하며 / 할머니들과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  
 천오백 번의 발돋움 끝엔 날아오르길 / 작은 나비들이 모여져 큰 힘이 되기를 / 하늘  
 높이 비상할 보랏빛 나비를 위해 / 1500 번 더 존엄하고 강해진 우리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 함께 기억하고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고 미래로 / 전범국 일본은 무릎꿇고 사죄하라 /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힘으로 바꾼다 / 모질게 흔들어도 굳세게 그 자리에서 / 진정한 사죄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 / 긴투쟁 1500 고개너머 승리로! / 우리함께 잊지말자 다짐하는  
 수요시위 /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일본은범죄를인정하고꼭사과하라 / 천오백차 수요시위 어서 끝내야한다 /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우리의 인권 / 우리의 행동은 결코 멈추지않는다 ㉞ /  
 사과받을때까지 계속 이어나갑시다 / 1 만 5 천 번이라도 해결될 때까지~~ /  
 일본정부의공식사죄와배상을촉구 / 우리는 나아갑니다. 힘차게 두박두박. /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 끝까지 해요! / 전세계 민중앞에 일본은 사과하라 / 벽을 넘고 또  
 넘는 용기와 연대의 힘 / 잃어버린 소녀들의 꿈을 돌려주소 / 1500 차, 제주에서  
 함께합니다 / 함께한 1500 주, 자랑스러운 우리 / 역사가바로서야미래가바로선다 /  
 수요시위는 인권사의 보석입니다! / 인권의 외침 연대의 시간 모두의 평화 / 일본군  
 성노예 끝까지 싸워 나갑시다 / 우리의 힘으로 수요시위 승리합시다! / 1500 차  
 수요시위로 끝날 수 있기를!!! / 반성하지 않으면 용서도 할 수가 없다. /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는 일본 추악해! / 일본군위안부 문제 반드시 해결하자!! /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필히 해결하라 / 나는 수요집회정신을 지지합니다. / 일본은 전쟁  
 성범죄를 즉각 사과하라 / 민족의 역사를 새로 써운 투쟁입니다 / 피해자들의  
 눈물을 꼭 닦아드립니다 / 1500 차 까지..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 멸시와 배제,  
 차별과 폭력을 거부한다 / 역사를 바꾸고 정의를 세워온 투쟁 / 죽을 때까지 배워서  
 전하겠습니다 /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면 미래는 없다! / 끝까지 싸우는 우리가  
 기어이 이긴다 / 수요시위는평화와인권으로갑니다. / 이제 통곡과 눈물을 거두게  
 하소서! /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을 위해.. / 정의의 빛은 반드시 빛이 날것  
 입니다. / 기억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고  
 증명합니다 /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性暴力のない世界をめざして共に성폭력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함께 /  
 반성모르는일본,염치를가르쳐주자 / 반성 않는 일본 정부 사죄하는 날까지 / 우리  
 모두 담쟁이처럼 벽을 넘자구요! / 1500 번의 뜨거운 손잡기,  
 바로 연대 / 빛나는 사람 장대한 여정 위대한 승리 / 1500 차 수요시위 바위처럼

견고 / 정의를 옹위하느라 묵묵히 걸어 온 길 / 기억해야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  
 일본은 진정한 사과와 참회를 표하라! /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계속 흐른다! /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언제나처럼 / 일본이 뉘우칠때까지 이어져야 한다 / 반성하지  
 않는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 / 응원하오니 끝까지 물러서지 마세요. /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라 /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그날까지! / 한사람 한사람 소중한  
 인권을 위하여 / 우리는 지치지, 멈추지도 않습니다. / 진정한 반성이 없는 역사는  
 반복된다 / 지치지 말고 당당하게! 응원합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희망을 잡고 살자  
 / 어느덧 천오백회차, 끝까지 함께 갈 것. / 천오백 발자국마다 눈물이 피었구나 /  
 수요시위는 진실을 밝히는 평화시위 / 큰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 기필코  
 보고 싶습니다 그 끝을!!! / 전쟁과 탄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 일본은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라 / 끝없는 집회 성과는 가슴에서 자란다. / 희망을 연대하는  
 천오백차 수요시위 / 인간성을 부르짖는 여성이 존엄하다 /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잊지 않는다. /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합니다 / 기억과 작은 실천만이 새로운  
 세계를 ... / 우리는 결코 잊지도 지지도 않는다 / 사라져 마땅한 3 가지 폭력 무기  
 전쟁 /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지금 사과받지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 수요시위, 잊지 말고 계속 관심을! / 진실이  
 알려지길 정의가 이뤄지길 /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을 향해 가자. /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시작이다 /  
 일본은 망언을 그만두고 정신차려라 / 우리의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 의견 차이  
 없는 그날을 향해 함께 가자 / 꾸준히 참석해주신 분들 존경합니다 / 가해국 일본은  
 사과하고 배상하라!! / 하루 빨리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하라! / 기억하고 있고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 언젠가는 그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 진실과 정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 전쟁에 짓밟힌 인권을 기억하고 기림 /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그날을! / 많은 사람의 뜻이 모이면 하늘도 동해~ / 할머니들의 용기로 여기까지  
 왔어요 / 과거를 잊은 자에게는 미래도 없다 / 1501 번째부터는 저도 함께합니다. /  
 인권을 향한 발자국은 영원하여라 / 노란나비의 기억, 영원히 기억되리.. /  
 정의 기억 연대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 진심으로 속죄하고 이제 발뺀고자라 / 지금  
 당장 빨리 위안부 문제 해결해라 / 변치않은 마음으로 응원 열심히 해요 / 잘못된  
 역사 왜곡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 역사의 반성없이 미래도 암울하다. / 천오백번의  
 외침. 이제는 가서 닿기를. / 함께하지 못하지만 응원합니다 /  
 죽은자의 인권이 산자의 인권이다! / 日本政府は事実を即刻認めろ! 일본 정부는  
 사실을 즉각 인정하라! / 1500 번째 외침에 응답하라. / 우리는 함께 기억하고 싸울  
 것입니다. / 진심으로 사죄하고 끝없이 반성하라 / 진실을 밝히는 수요일에

함께해요! / 정의는살아있고내기억은이어진다 / 우리는계속행동하며이를것이다! /  
 잊혀지는 역사가 되지 않길, 함께해요. / 참된 마음의 참회를 역사는 기다린다. /  
 지금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 진정한사과는미래로갈수있는계단 / 더 이상  
 슬픈 수요일이 없도록 / 오랜시간동안 꾸준히 대단합니다 /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 일본은 더이상 역사를 왜곡하지말라 /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가요 /  
 1500 회 수요일시위 참으로 대단합니다. / 끝까지 할머니들 곁에서 싸워주세요! /  
 30 년, 1500 차, 이제는인정할때 / 할머니들 응원합니다! 일본은 사과하라!! /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 끝까지 싸우자 / 1500 년이 지나도 기억될 우리의 외침 / 잔혹한  
 국가폭력 일본은 사죄하라 /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 역사를  
 왜곡말고 진정으로 사과하라! / 천년이 지나도 명백한 진실은 소환돼 / 정의연의  
 헌신 노력에 존경 경의를!! / 正義と女性の幸せはみんなの幸せ정의와 여성의 행복은  
 모두의 행복 / 기억과 연대로 정의를 바로 세우리라 / 일본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 한국 역사의 상처가 아물기를 빕니다. /  
 우리의하나된목소리무시하지마라 / 성인권을 살려내라! 끝까지 수요일시위! /  
 정의연의 행보 무한지지 신뢰합니다 / 마음이모여뜻을이루길기원합니다 / 이  
 시간까지 오지 말았어야 할 아픔들 / 우리의 작지만 큰 날개짓, 이루어질 꿈 / 진실과  
 평화의 외침으로 살리라! / 彼女の声は歴史に刻まれ記憶される。 그녀의 목소리는  
 역사에 새겨져 기억된다 / 매주 수요일을 세계인권의 날로~ /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 新たな気持ちで前へ。共に!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함께! /  
 '위안부' 할머니들의 진실을 위해 /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없지만 응원해요 / 세계에서  
 가장 강렬하고 영원한 연대. / 이것은 끝까지 나와 우리의 역사이다 / 그네들을  
 잊지않고 기억하겠습니다. / 잊지 않겠습니다. 힘내요. 감사합니다. / 평화 나비,  
 이땅에 평화의 바람 되소서. / 지난시간 잘 견디셨습니다 감사해요 / 할머니 처럼  
 희망을 잡고 살겠습니다 / 3000 차까지도 우리 함께 갑니다 /  
 힘찬목소리에진실과평화가열린다 / 1500 차 수요일집회 영원하라!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때까지함 / 책임자를 처벌하고 조속히 사과하라 /  
 姜徳景ハルモニ! 水曜デモ 1500 回目です! 강덕경 할머니! 수요일시위  
 1500 번째입니다! / 정의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함께!! /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 함께 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질긴놈이 이기지만 이제는  
 사과받자 /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 / 1500 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 진정한 화해는 사과가 먼저입니다 /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모든 국민  
 염원 / 미투에 위드유로 응답하는 수요일시위 /  
 平和の道が世界へ続きますように평화의 길이 세계로 이어지도록 /

일본은전쟁성범죄를사죄배상하라 / 아니벌써 천오백차 사과하자 일본아!!! /  
 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尊厳回復を!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회복을! /  
 평화와 정의를 천 오백 번 되새겼노라 / 우리의 날개짓이 진정한 빛을 보기를 /  
 일제야 부끄러운 역사는 그만 써라 쫓!!! / 1500 차 그 시간들.. 고맙습니다.. /  
 이기려고 하기 전에 인간이어야 한다 /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집니다~ / 1500 차  
 수요시위를 축하합니다 / 여전히 진정한 사과를 하지않는 일본! / 이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증거이다 / 1500 차나 됐다. 사죄와 배상하라! / 정의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세상으로! / 압제와 왜곡을 이겨내는 정의의 힘! / 우리는 원한다 일본은  
 사죄와 배상해 / 수요시위가 사라질 때까지 싸웁시다. / 기억하고 기억해서 힘이  
 되겠습니다. / 멈추지 않는 요구 이제는 응답할 때다 /  
 길은걷는자의것이니계속걸어가리 / 할머니들의 꿈을 꼭 이어가겠습니다 / 수요시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 전시성폭력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 수요시위는  
 평화이자 여성인권이다 / #공식사죄 #법적배상 일본은 사죄하라! / 일본은 사죄하고  
 정당한 법적 배상하라 /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정의와연대가실현되는국가위하여 / 위안부분들이 일본에게 사과 받기를 ♪ /  
 역사를 잊은 자들에게는 미래도 없다. / 살아계실때꼭 사과 받으셨으면 좋겠다 /  
 그녀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 1500 차 수요시위를 축하합니다 / 수요시위가  
 끝날때까지 응원할게요 / 1500 차수요시위를응원합니다 / 역사를 알고 항상  
 기억하고있습니다! / 모든 피해자 분들 꼭 잊지 않겠습니다 / 수요시위 천오백회를  
 축하 드립니다! / 수요시위에 꼭 참여해보고 싶어요 / 그날은 없어져도 잊었던  
 사람은 없다 / 연대하는 노력은 언젠가 빛을 바란다. / 수요 시위에 꼭 참여하고  
 싶어요!! / 우리의 소망은 돈이 아닌 일본의 사죄 / 1600 회가 되기전 까지 빨리 사과  
 합시다 / 위안부피해자분들수고많으셨어요. / 진실이 침묵한 몇 년 우리는 함께한다.  
 / 그대 있음에 우리 가슴은 불타오르리 / 이번시위를 함으로써 꼭 해결되기를 /  
 위안부 소녀들... 기억하고 연대합니다. / 위안부'피해자분들을 응원합니다. /  
 기억하고 굽히지 않는 것이 연대이다 / 시간은 흘러가지만 우린 영원합시다. / 직접  
 가고 싶은데 못가서 아쉽네요 .  
 / 사과를 받을 때 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여름이 그대에게 아프지 않기를 /  
 위안부'문제를 다같이 해결합시다 / 위안부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자 / 위안부  
 문제가 꼭 해결되길 바랍니다. / 수요시위,1500 차빨리끝내자 / 천오백차에 담긴  
 희망으로, 정의 실현! / 천오백차를 넘어 평화와 인권을 행해 / 역사는 지울수록 더  
 또렷이 각인된다. / 正義の実現されるまで、立ち続けます。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 서 있겠습니다. / 1500 回の想いを今すぐ形に! 1500 차의 마음을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 平和路での出会い、学び、笑顔♡평화로에서의 만남, 배움,  
웃는 얼굴♡ / 우리의 소명과 사랑이 하나입니다 / 전쟁없는 나라, 자주적 평화통일  
정답 / 수고 많으십니다! 쉬지말고 끝까지... / 사죄하지 않는 일본 집권당 규탄한다. /  
항상 그곳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실과 정의, 인권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  
일본은 준엄한 역사 앞에 사죄하라! / 일본은 위안부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전쟁 성노예제 / 수요집회 동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 전쟁  
피해자 없는 세상 만세! / 천오백회 수요시위, 정의 평화의 외침 / 일본의 공식적인  
인정과 진정한 사과 / 세상에서 가장 오래한 시위, 결실 맺기를 / 진정한 출발은  
일본의 속죄로부터 / 일본의 공식적인 인정과 진정한 사과 / 진정한 출발은 일본의  
속죄로부터 / 절대지지않습니다연대하겠습니다 / 이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평화를 /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 천오백자수요시위백회까지가자! / 전쟁과  
폭력없는 평화의 세상을 위해 / 일본 사죄해! 할머니 뒤에 우리가 있다! / 1500 번  
수요일을 지킨 힘이며! / 일본이 부인해도 역사는 기억한다! / 여성인권과 평화  
구현을 위한 연대 / 수요시위는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길 / 일본은 사죄하라  
전쟁성범죄 근절하라 / 역사의 정의는 투쟁으로만 지켜진다 / 인권이 살아 숨쉬는  
세상을 향한 걸음 / 기억과 연대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 수요시위의 주인은 우리  
모두 입니다. / 인권과 평화의 상징 평화로 수요시위 / 미약하더라도 멈출 수 없는  
발걸음! / 물러서거나흔들리지않고바위처럼 /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될, 끝낼 수 없는!  
/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 / 평화를 향한 나비의 꿈을 기억합니다 /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밝히 드러난다

<나와 수요시위> 에세이 공모

선정작 모음

초등



## 조한나

저는 요즘 평화배움 주간이라 평화와 위안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위안부에 대한 영화나 학습지,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영상처럼 여러가지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위안부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안부를 배우면서 위안부는 강제로 일본군에게 성폭력을 당한 소녀들을 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화가 났습니다. 일본이 위로해주는 단체, 위안부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2021년-1500회 수요집회를 참여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위안부의 대한 생각이 수요집회를 참석하면서 더 났습니다. 그리고 수요집회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순옥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께 우리반 친구들과 함께 편지를 써서 온라인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하고 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이 단지 정성을 다해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그 상황에 대한 공감만 해 주어도 위안부 할머니들께는 큰 위로가 되시고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배움 주간을 겪으며 위안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평화란 무엇인지, 평화를 실천하신 인물들은 누구 신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평화를 배우면서 평화는 행복과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은 희망이고 축복은 은혜니 저에게는 그게 평화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를 지키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서로 배려하며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들리지만 이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말한 "배려"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평화서약을 쓰겠습니다.

1. 나는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겠습니다.

2. 화가 나도 내가 화가 난 이유를 생각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나와 다른 종교, 다른 인종, 다른 성격이라고 무시하거나 다투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겠습니다.

4. 나는 다른 사람이 불편할 만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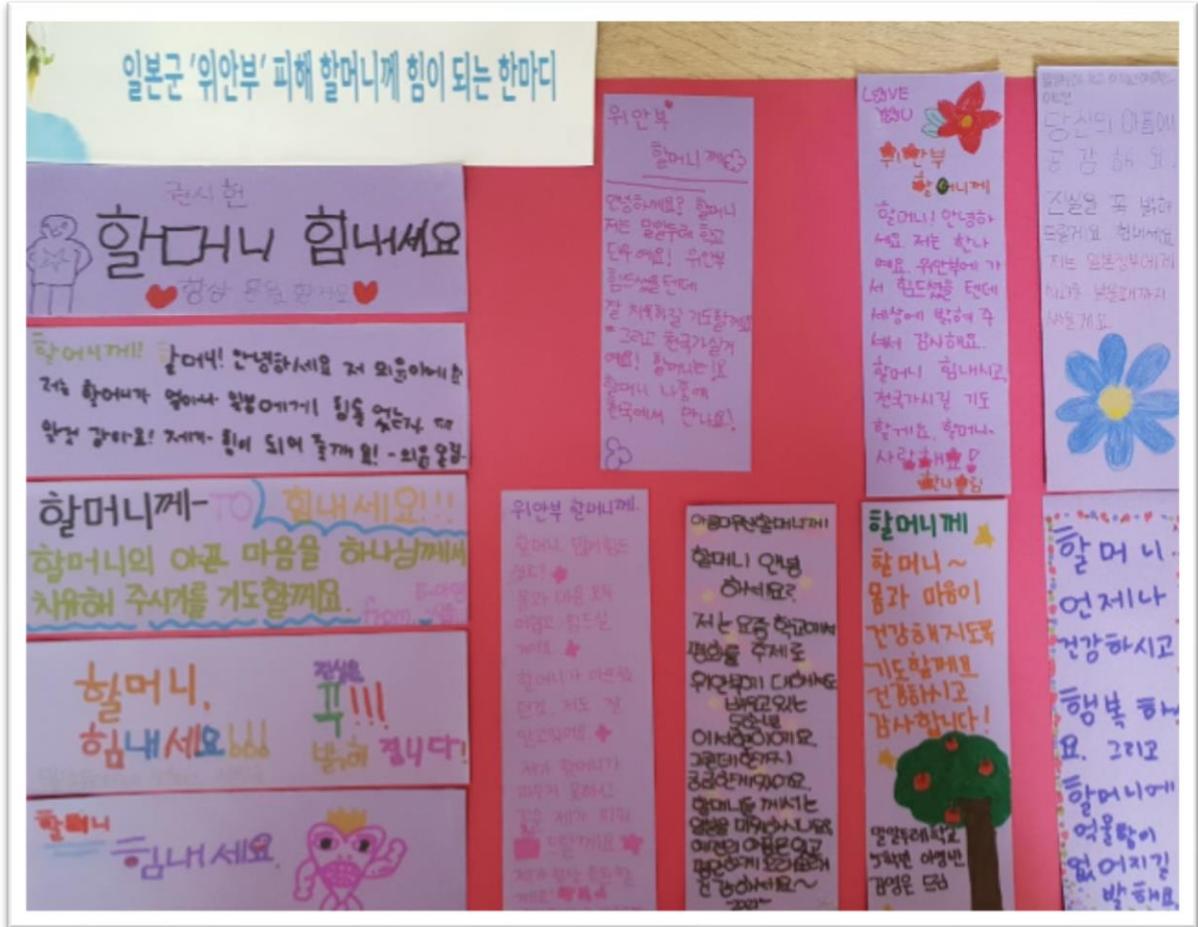
이상으로 제 평화서약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실천하신 인물들 중 10대 평화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여성인권을 주장하는 말랄라 유사프자이 등의 인물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자신의 생각을 용감하게 SNS에 밝히고 있고,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반대세력의 총에 머리를 맞고도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용기가 닦고 싶습니다. 그리고 닦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할머니들께 편지를 쓰겠습니다.

-할머니들께-

할머니! 할머니께서 나쁜 기억 다 잊으시고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계시고 꼭! 일본에게 사과 받으세요! 화이팅! -한나올림-

# 이서현



우리 학교는 남양주시에 있는 12학년까지 있는 기독교대안학교 밀알두레 학교이다. 나는 요즘에 학교에서 평화에 대해 배우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번주가 평화 주간이기 때문이다. 요즘엔 위안부에 대해 배우고 있다. 위안부에 관한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있는 중 선생님께서 온라인으로 참석하도록 도와주셨다. 수요집회에 참여하며 느낀 점은 위안부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쏠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학교에서 평화를 배우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평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들, 평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위안부에 대해서도 배웠다. 나는 평화란 "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봄은 따뜻하고, 생기가 돌고, 밝은 계절이다. 나는 그런 게 평화라고 생각한다.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생기가 돌고 밝은 그런 게 평화라고 생각한다. 내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할 일은 배려이다. 조금만 더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 같다. 나는 평화서약을 이렇게 쓸 것 같다.

'나는 평화를 위해 아래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 나는 평화를 지키려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나는 평화를 지키려고 배려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나는 평화를 지키려고 믿음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서 평화를 지키고 싶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모두 일본을 미워하는지 궁금하다. 우리반 친구들도 처음에 위안부 얘기를 듣고 일본에게 불만을 가졌는데 직접 위안부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들은 더욱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반 친구들이 불만을 가지자 선생님께서 일본은 잘못된 게 없고 위안부가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갖으시는 할머니도 계실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점이 궁금하다. 최근 수업에서는 평화에 대한 책갈피를 만들어서 2학년 동생들에게 평화주의자 발표와 함께 책갈피를 나눠주는 활동도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께 힘이 되는 한 마디를 적어서 우리반 친구들 다같이 사진을 찍는 활동도 했다. 그리고 6.25 전쟁을 맞이해서 주먹밥으로 삼행시 짓기와 주먹밥 먹기 행사를 한 적도 있다. 주먹밥 먹기 행사는 오늘 학교급식에서 주먹밥과 감자만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삼행시 짓기 행사는 초등전체가 참여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썼다.

주-주사위는 던져졌다!

먹-먹지도 못하고

밥-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게임 6.25 전쟁!

6.25 전쟁이나 위안부처럼 평화가 깨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나도 평화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제

앞으로 평화를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겠다. 여러분 평화를 지키도록 노력해주세요~!

# 이소현

시작하기 전부터 일본에게 끝까지 사과를 받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느껴져, 나까지도 의욕을 오르게 한 것 같다. 또 할머니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읽어 주셨다. 그 다음, 인사말부터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의 목소리가 닿을 때까지 맞서고 포기하지 않겠다란 마음이 확실히 느껴졌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마음과 뜻이 확 와 닿는 느낌이다. 모두가 일본에게서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그 한마음으로 1500 회 수요집회까지 달려가고 있다. 사람들의 열정이 대단하고 이제부터 나도 함께하고 싶다.

수요시위에서도 무슨 문제인지도 몰랐다는데 겉으로만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도 아직도 왔다는 뭐가 문제인지도 정확히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공감하는 마음만을 있다. 모든 사람들이 결보기에만 도와주고 공감하지 못 하는 것보단, 위안부 할머니들을 공감하고, 풀어주면 좋겠다. 할머니들이 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좋겠다.

수요시위는 일본에게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하는 나의 의욕을 올려주었다. 기회가 또 온다면 또다시 참여하고 싶다. 수요시위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이 담겨있는 모임이였고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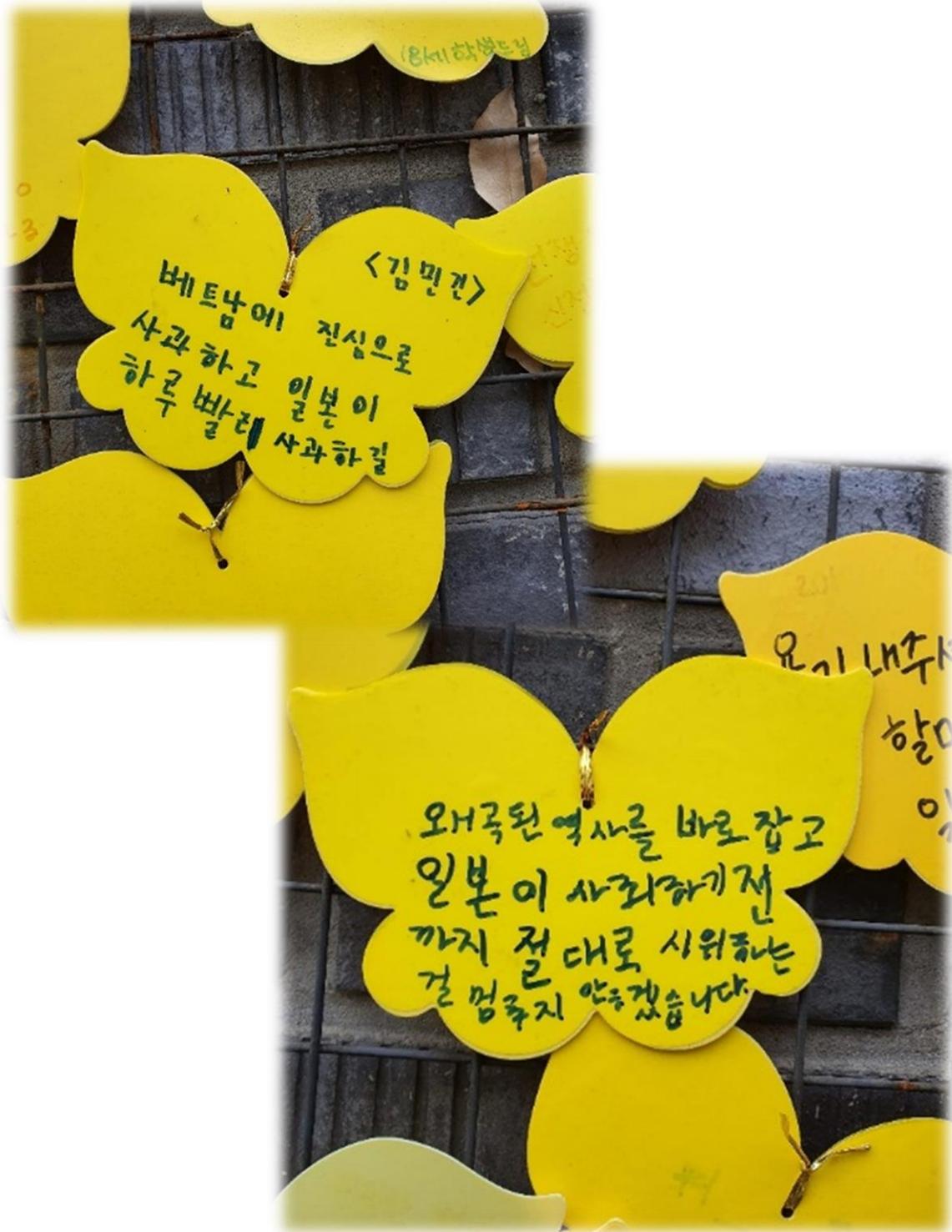
# 김민건



내가 수요시위에 처음 참석하는 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요시위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엄마가 같이 참석해보자고 해서였다. 마침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심심했는데 수요시위를 라이브로 집에서 보면서 엄마랑 형이랑 호떡도 만들어 먹고, 바위처럼 춤도 따라 추면서 즐겁게 참석했다. 내가 바위처럼을 추는 것이 챌린지로 나와서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도 바위처럼 챌린지를 하게 돼서 되게 좋았다. 그리고 나는 작년 여름 드디어 진짜 수요시위에 참여하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가보았다. 아무래도 수요시위에 가는 것이니 지난번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 산 김복동 할머니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갑자기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생각 하니 그때 노란 나비에 다짐을 써서 벽에 붙였던 것이 기억 난다. 나는 노란 나비에 '베트남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본이 하루빨리 사과하길'이라고 썼고, 형아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일본이 사죄하기 전까지 절대로 시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썼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수요시위 현장에 도착했다. 수요시위 현장에는 방송국 카메라가 엄청 많았다. 카메라가 짹~ 깔려 있으니 조금 무섭기도 했다. 엄마가 수요시위 현수막을 잡고 있을 사람을 구한다고 나랑 형한테 해보겠냐고 제안했다. 형은 싫다고 했는데 나는 해보고 싶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 한다. 왜냐면 내가 이날 김복동 할머니 옷을 입고 왔고 이날이 마침 수요시위가 기자 회견으로 바뀐 제 1447 회차 수요시위였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이라 카메라가 엄청 많이 온 것이었다. 나는 김복동 할머니 옷을 입은 내가 현수막을 들고 있는 게 오늘 수요시위에 가장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수요시위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김복동 할머니 옷을 입고 올 줄 알았는데 나만 입고 와서 조금 놀랐다. 현수막을 들고 있으니 굉장히 긴장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 섰던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움직이지 않고 현수막을 꼭 붙잡고 있었다. 김복동 할머니 옷을 입고 있으니 그렇게 해야할 것 같았다. 김복동 할머니를 한번도 만나지는 못했지만 영화 김복동에서 봤을 때 할머니라면 수요시위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고 현수막을 끝까지 들고 계실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시간이 굉장히 느리면서도 빠르게 간 것 같다. 수요시위에 참석해보니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한 기분이 들었고 할머니들에게 힘을 드린 것 같았다. 이렇게 수요시위에 참석한 이야기는 끝이다. 이제부터 나의 수요시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수요시위에 나간 후에 바뀐 생각을 쓸 것이다.

수요시위에 나가기 전에도 나는 수요시위에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하지만 정확히 그리고 자세히는 잘 몰랐다. 그러다가 지난번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간 이후로 수요시위를 무엇을 위해, 또 왜 하는 것인지 잘 알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왜 사죄를 안 하는지 그전에는 잘 몰랐다. 하지만 지금도 잘 모르겠다. 잘못 했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사과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영원히 사과를 받지 못할 거라는, 그저 이 사건이 역사 속으로 묻혀버릴 것이라는 생각도

가끔씩 들긴 한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일본이 사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동안 고생하신 것과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조금이라도 낫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과 같은 인간을 괴롭히는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고등

# 김다음



"나이는 90 세, 이름은 김복동입니다."

김포제일고 2년 김다음

"학생들, 끌려가지만 말아" 라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던 청년 언니, 오빠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시던 김복동 할머니는 2019년 1월 29일 장례식장 영정사진 안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나비 되어 훨훨 날으소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일본대사관 앞까지 마지막 배웅을 해드리며 고개 숙여 명복을 비는 추모의 마음 무게만큼 두려움의 무게도 같이 왔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을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날 보내 드린 할매나비께서는 2019년 8월 8일 영화<김복동>으로 스크린 안에서 웃고, 울고, 외치며 '모두가 알아야 하고 알려야 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 서서 우리에게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라고 싸우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 각지에서 우리처럼 전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선언입니다.

일본군으로부터 갖은 고초를 당했던 그 소녀는 94세의 여성인권운동가로 2015년 12월 28일 일방적인 한일합의가 이루어지던 그 날에도 차가운 눈보라를 맞으며 수요시위에 계셨습니다. 화해는 가해자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합의를 진행해 놓고 10억엔을 받아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입니다.'

'성실한 사죄를 했다', '충분한 보상을 했다'라는 일본인들의 망언은 어긋난 역사를 아직도 부끄러움 없이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행은 할머니비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전국에 112개의 평화의 소녀상은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닌 '김복동' 그 자체입니다. 소녀상을 세우기 위한 노력만큼 소녀상을 지키고 관리해 다음 세대까지 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 김포시 청소년으로 우리가 바로 김복동입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 이상연

"나의 수요시위"

부제 : 내가 애국하는 길

김옥선 할머니께

"애국하는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내 나라가 나를 지켜야 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할머니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매일 당연히 하는 공부인데 그 자체가 애국하는 길이었다니 저에게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애국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제일을 하는 게 너무도 자랑스럽고 고 3을 지나 대학에 가면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를 뵈고 할머니께서 참여도 하시는 수요집회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유튜브로 현장을 느끼면서 할머니께서 전하려고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게 되어 참 좋아요.

할머니들의 진정 어린 목소리로 변화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일본은 왜 사과를 안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를 부정하며 역사왜곡하고 있을까요? 아픔의 상징인 소녀상은 왜 철거하길 원할까요?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나네요. 벌써 27년째 수요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에 전세계에서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하나는 작지만 수요집회에서 연대참여를 통해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의 용기가 너무 멋지시고, 그 용기로 침묵하고 있던 많은 이들을 움직이게 해주신 점 감사드려요. 자주 수요집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전쟁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트럼프가 이 말을 한다고 강한 메시지일 것 같지 않아요. 할머니와 함께한 수요일, 이 수요집회가 더 힘있고 강하게 전달되어 질것이라고 믿어요. 매주수요일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이나 소녀상 옆에서 오늘도 응원무용을 하시고, 마이크를 들고 사과와 평화를 외치고 계실 할머니들과 뜻을 함께하는 대단하신 분들을 보며 저는 항상 응원하고 대학가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1500 회까지 많은 노력하신 시간을 바탕으로 이번 수요일 이후로도 많은 여성들의 인권과 평화, 아픔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이용해서 세상에 알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할머니께 너무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할머니, 꼭 일본에게 사과를 받고, 할머니들께서 마음 편히 사시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수요일은 매주 의미 있는 요일일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한 일을 동참하고, 메시지도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고, 다시는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희 삶의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준 할머니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수요일에 또 뵈어요, 할머니.

2021. 6. 30

이상엽 올림

일반

# 전지윤

바위가 온 몸으로 흘리는 땀과 눈물이 보인다면

이토록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정의연(정대형)의 수요시위에 솔직히 나는 지난해 여름에 처음 제대로 가본 것 같다. 그 전에도 몇 번 참가한 어렵풋한 기억이 있기는 하지만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참가는 아니었던 것 같다. 당연히 지지해야 마땅한 의미 있는 투쟁이라고 생각했지만, 나같은 별 거 없는 사람까지 적극 참가하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것을 이뤄낸 대단한 투쟁이라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지난해 봄부터 여름에 걸쳐 일어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전사회적 비난과 공격은 그만큼 더 당혹스럽고 안타까웠다. 원래부터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뿐 아니라,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이었던 사람들은 물론, 우호적인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까지도 우르르 한쪽으로 몰려가면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모습은, 이럴 때일수록 수요시위에 참가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

특히 당시에 나는 보수언론이나 우파적 정치인과 지식인들보다는 진보개혁적이거나 좌파적인 언론과 정치인, 지식인들의 태도에 더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아마 주변에서 지켜보던 나보다도 공격받던 당사자들이 느낀 상처는 더 컸을 것이다. 특히 손영미 소장님의 비극까지 벌어지고 나서, 그 상처는 영영 아물 수 없는 것이 됐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정의연의 역사나 활동, 이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기독교 우파세력들의 책임 등을 누구보다 더 잘 알 만한 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비웃고 탓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고서 느낀 서글픈 감정이 지금도 기억난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주 어릴 때 살던 서울 변두리의 한 동네에서 강패들이 어떤 사람을 길거리에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고, 그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는데도 구경만 하면서 수군거리며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이상한 괴로움과 님아 있다.

또, 그것은 내가 중학교 때 교실 뒤편에서 '일진' 아이들이 어떤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는데 그 교실의 아이들이 웃으면서 지켜보거나,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못 본 척하면서 자기 일만 하던 광경에서 느꼈던 괴로움과 닮아 있다.

나아가, 그것은 내가 한때 속해 있었던 운동단체에서 나와 입장이 달랐던 지도부가 갑자기 나를 야비한 사기관 취급하며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거의 모든 동료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너도 나도 나를 향해 돌을 던지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그런 사람들만 미워하고 탓하고 싶지는 않다. 정파와 진영과 입장의 차이로 나뉘어서 서로 벽을 쌓고 감정을 키우고, 누군가 힘들 때 서로 돕기보다는 등을 돌리는 우리 사회의 풍토, 거기서 별로 자유롭지 않고 가끔 더 심한 측면도 있는 운동사회의 풍토가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주류 기득권층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이용해 왔다.

그것의 핵심은,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는 사람을 구경만 하며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에게,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를 웃으며 지켜보거나 못 본 척하던 아이들에게,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스스로 정당화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는 저 사람에게 잘못과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에게 이러 저런 결함과 실수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운동가들은 주류사회로부터 단지 '빨갱이'라는 딱지만이 아니라, '파렴치한 위선자'라는 도덕성에 대한 공격을 받아왔다.

1940년대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때 조선공산당 활동가들은 미군정 경찰에게 위조지폐로 검은 돈을 모은 범죄자라고 낙인 찍혔다. 1960년대 FBI는 마틴 루터 킹이 앞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뒤로는 성적인 일탈을 저지르는 위선자라고 공격했다.

심지어, 그런 비난과 공격은 때에 따라 일부 사실이었을 수도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헌신적인 사회운동가라도 결국은 인간이기에 결함과 문제가 있고, 잘못과 실수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문제의 본질이었을까? 미군정 경찰이 지정한 조선공산당 활동가들의 잘못이 본질이었다고, FBI가 지정한 마틴 루터 킹의 도덕적 결함이 본질이었다고 생각하고 비난에 함께하고 동조, 방관했던 사람들은 과연 지금도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할까?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전 사회적인 비난과 공격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분들에게, 그런 비난과 공격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던 사람의 심정에 감정 이입하길 기대하는 게 무리라면, 본인 자신이 그런 처지가 된다면 어떻게 상상해보기라도 기대해 본다.

특히 나와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같이 허우적거려야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떻게 상상해 봤으면 한다. 차라리 내가 당하면 당했지 사랑하는 이의 괴로움을 보기는 끔찍하게 싫은 것이 대개의 마음이다. 그래서, 언제든 이런 소용돌이로 말려들 가능성이 있는 사회운동가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가족 관계를 맺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서글픈 생각까지 든다.

물론 지난 1년간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에게 닥친 시련 속에는 피해자와 연대자(조력자)의 관계라는 매우 조심스럽고 결코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오랫동안 켜켜이 쌓이고 뿌리가 깊은 사안일수록 더욱 그럴 것이다. 이미 정의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피해자와 연대자 사이의 갈등과 반목, 그것이 낳은 위기, 그것을 이용한 외부의 공격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서로 경험과 위치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와 연대자로 만나서 함께 역사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동시에 길고 힘든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쓰라린 감정, 오해, 상처도 남길 수 있다.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그 뒤텀 매듭들을 풀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언제든 그 뒤텀 부분을 더욱 꼬이게 만들면서 실타래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구조와 세력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실타래를 풀려고 하다가 그런 매듭들을 만들어냈냐고 연대자들(피해자들도)을 큰 소리로 비난하고 탓하기 보다는 조용히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도움과 의견을 줄 수는 없는가. 이미 우리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그 실타래와 매듭들을 잘 알고 오랫동안 애쓰며 풀어온 사람들이 저기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바위처럼' 묵묵히 견디고 있으니, '바위처럼' 버티던 사람이 온 몸으로 흘리는 땀과 눈물이 보인다면.

# 박미라



제목: 나와 수요시위

부제: 1342 차 수요 시위를 다녀와서...

2018년 2월 28일(수) 1324 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다녀왔다.  
낮 12시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수요시위를 하는데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최하고 화성여성회에서 주관한 수요 시위였다.

수요시위에는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였는데 곳곳에는 '소녀의 눈물 역사가 기억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어려워집니다. 빨리 사과하세요' '할머니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필요합니다.'라는 작은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수요 시위를 하기에 앞서  
그곳에 모인 우리들은 한 목소리로 울동과 함께 '바위처럼'을 부른 후 한미경  
화성연대여성회대표는 "우리에게는 역사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3.1절 아픔은 온전하게 해결되어야 할 숙제들이 함께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는 경과보고를 통해 "우리는 그날로부터 99년째 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 하면 희망이 떠오르고 얼어붙었던 땅도 스스로 녹고 얼음을 채웠던  
땅에서 아지랑이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생명은 두렵고 죽었던 것 같았던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솟아오릅니다. 생명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느덧 짓누르고  
억압한다고 해도 생명을 가진 희망은 우리들 앞에 꽃으로 피웁니다. 그게 바로 봄입니다. 지난

99년을 봄인 것처럼 살았지만 진정한 봄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면서 마지막으로 "사랑다운 세상을 꿈꾸며 전국 각지를 외치면서 할머니들에게 인권과 전쟁을 반대하는 일본정부에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외침이 있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리고 평화의 목소리, 만세의 함성, 평화의 함성을 일본대사관을 향해 와~~~~하고 큰소리로 외쳤다.

1324 차 수요집회에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고통을 이겨 내시고 일본 정부를 향해 정의를 맞서서 외치며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백만 시민이 드리는 여성 인권상 수상식이 있었다. 이 여성 인권상은 오랜 시간 인권 평화 운동가로 활동 해 오신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드리는 상인데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화 하라고 요구하면서 끝까지 일본에서 준 위로금을 거부한 가족들에게 백만 시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만든 상이므로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상이 아닐까 싶다. 올해 여성인권상은 지난 2015년 5월 향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효순 할머니에게 드렸다. 이미 고인이 되신 이효순 할머니를 대신해서 아들인 이동주님이 수상을 했는데 이동주님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머니는 모든 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잊지 말고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수상이 끝난 후 문화공연도 있었는데 가야금 병창인 정혜심님은 '모두 다 꽃이야'를 참석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꽃이 아닌 사람이 없듯이 살아 계신 할머니들도 꽃이고 이미 고인이 되신 할머니들도 꽃이었을 것이다.

이어서 원당중학교 학생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쿠폰을 만들어 카페를 열어 커피와 차를 팔아 모은 344,500 원을 나비기금으로 기부해 그곳에 모인 참가자들을 훈훈하게 만들었으며 오색 빛깔 어린이들은 "위안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알게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수요 시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에 다니는 학생은 일본대사관을 향해서 일본말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화성여성회에서 성명서 낭독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제 1324 차 수요 시위를 끝마쳤다.

그 전날 충격적인 뉴스가 눈과 귀를 사로잡은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후원하고 서울인권센터가 3년 반 동안 '위안부' 자료를 추적을 한 내용이었는데 조사하고 발표하는 내용은 바로 일본군이 조선에서 끌려간 여성들을 성 노예로 부려 먹고 전쟁이 끝날 때는 총으로 학살한 것도 모자라서 땅을 파서 한 구덩이에 몰아넣은 사진은 충격적이지 못해 처참하기까지 했다.

'I am sorry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와 '꽃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라는 피켓을 든 어느 중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다가옵니다.

추신: '위안부'에 따옴표를 표시하는 이유는 범죄를 축소하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그 역사적 실제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범죄의 주체인 일본군과 이것이 역사적 용어라는 바를 꼭 밝히기 위해 작은 따옴표를 붙여 표기함.

# 박경주

수요일을 기억하다, 소녀들을 기억하다

나의 첫 번째 수요시위 참여는 2015년 2월, 첫째 수요일이었다. 오랜만의 고국 방문이라 찬 겨울임에도 여러 가지 계획을 촘촘히 세웠다. 그중 수요시위 참여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다. 딸을 데리고 전철을 타고 일본 대사관 앞을 찾아갔다. 함께 수요시위에 참여해 아이에게 일제강점기 당시 행해진 일본의 전쟁범죄와 만행에 대해 알려주고, 그 당시 겪었던 아픔을 지금까지 고스란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었다. 찬 바람이 두꺼운 코트를 헤집고 들어올 만큼 추웠던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가 도착하니 벌써 제법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학생들이 많이 참석한 것이 인상적이었고, 모인 분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뜨거움이 느껴졌다. 수요시위가 끝나고, 처음 만나는 '평화의 소녀상'과 사진을 찍었다. 소녀상 옆 의자에는 꽃바구니, 빨간 장갑, 유자 주스, 초록 화분 등이 놓여있었고, 소녀가 추울까 걱정이 되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울긋불긋 따뜻하게 핏몸 싸매어져 있었다. 소녀와 찍은 그 사진은 지금도 전화기에 곱게 저장되어 있다.

이날 수요시위의 참여는 한국 역사가 낯선 아이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전쟁폭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돌아오는 길에 광화문 광장에 들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아이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살피며 눈물 지었던 기억도 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과거의 소녀들과 현재의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폭력 속에서 아픔을 당하는 것을 마음으로 함께 한 날, 참으로 무거운 날이었다.

같은 해 5월 29일, 김복동 할머니께서 방문하셨다. 위안부 피해자 입장을 넘어 전쟁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보듬어 주고, 함께 평화의 세상을 열자는 취지를 갖고 평화나비 운동을 지지하신 날이었다. "일본 정부에서 받을 보상금 전액을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쓰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

김복동 할머니를 모시고, 7월 1일 워싱턴 디시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1185차 수요시위가 열렸다. 위안부 피해자로 활동을 시작해 치열한 여성운동가의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신 김복동 할머니. "내 소원은 죽기 전에 일본이 사죄하는 것을 보는 것과 남북통일을 위한 평화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할머니께 그 자리에 참여했던 워싱턴 시민들은 "할머니, 힘내세요"라는 외침으로 답했다.

2019년 10월 27일, 드디어 버지니아 애난데일 한국일보 건물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2016년 11월 워싱턴 디시에 도착했으나, 거의 3년을 참고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다. 2017년에는 버지니아 솔즈베리 대학교 교정에 세우기로 하고 건립일까지 정했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날, 김원옥 할머니께서 멀리 이곳까지 오셔서 마음을 보태 주셨다.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은 지역에서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전쟁과 폭력의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고, 아픔에 공감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2020년 6월, 1445 차 수요시위를 애난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었다. "일본 정부는 사과하고, 보상하라", "할머니들에게 정의를, 위안을, 명예를" 등 구호를 함께 외치고 마음을 모았다.

코로나 19로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열리는 한국의 수요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마스크를 쓰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큰 박수로 응원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살고 있어 한밤중 수요시위가 되기도 하지만,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뜨거운 바람이 먼 곳에 사는 나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이 명예와 인권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 날까지 수요시위는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의 소녀상'을 바라보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금도 견디고 있는 기나긴 거짓 역사의 상처를 가늠해본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하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진 깊은 마음의 상처와 여전히 아물지 못하는 몸 구석구석의 잔인한 흉터들에 대한 가해를 인정하라!

폭력을 정당화하고 의도된 폭력을 거짓으로 덮어버렸던 그 긴 시간을 보상하라!

아픈 자신의 속내를 내려놓고,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내하고 계신 모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존경합니다. 그 귀한 말씀과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한자리에 모여 정직한 역사를 쓰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정성껏 적어가고 있는 새 역사를 기대합니다.

# 임계재

평화비와 오이지. 수요집회 자원봉사자 임계재

초가을, 여전히 땀 흘린 몸으로 인사동 지인의 화랑에 들렀습니다. 작은 화랑에 조각작품 전시가 있더군요.

"누나, 수요집회 다녀오시는 거예요?"

"수요집회?"

키가 훌쩍 큰 작가인 듯한 남자가 키만큼이나 눈을 크게 뜹니다.

가난한 시절 서울로 오면 대수라도 나는 듯 보따리를 든 애잔한 시골 처녀의 모습에 유독 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수다쟁이인 저는 그 전시회를 수요일마다 전주에서 올라오시는 김판수 선생님께 짚알거리며 일렸고 나중에 다녀오신 선생님께서 '가슴을 치는 작품이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군요.

여전히 수요일마다 모금함을 들던 그해 겨울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집회 날, 애타게 영원했던 평화비 '소녀상'이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 세워졌습니다.

트럭을 개조해 만든 단상에 깡마른 김복동 할머니께서 오르셨습니다.

"일본 천황은 들어라!"

준엄한 그 호령에 숨도 쉬어지지 않게 눈물을 쏟으며 그래도 뭔가 한 매듭이 지어지려나, 애타면서도 평소 잘 가지지 않던 기대심도 한편으로는 슬멧 들기도 했지요.

그러나 우리의 정의롭고 당연한 연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우리의 등대이셨던 복동할매도 다른 세상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지안해 초여름, 추상같지만 속으로 한없이 따스하셨던 복동할매를 '즈그 친할매보다 더 잘 모셨던' 쉼터의 손영미 소장님을 우리는 원통하게 놓쳤습니다.

자주 못 봐도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손 소장님은 우리에게 변변한 인사도 없이 할머니 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기막힌 빈소에서 십 오륙 년 전, 승터가 서대문에 있던 시절 오이지 싸 들고 학생들 몰아 할머니들 찾아 뵙던 뉘두리를 울면서 늘어놓는데 곁에 있던 키 큰 사나이의 눈이 두 번째로 휘둥그레집니다.

"오이지? 그거 끓는 소금물로 어찌한다면서요?"

"왜요, 몇 개 드릴까?"

그렇게 평화비 만든 김운성 작가네와 손 소장님과 이별하면서 오이지 한 구좌를 텃습니다. 싸 들고 서대문에 가면 "어마나..." 반색하며 서둘러 부엌으로 향하시던 길원옥 할머니께도 이제는 잡수시라 전하기 어려워졌고, 여름이면 기다리던 몇몇은 이제 전할 수 없는 곳으로 떠나 누구를 주나 서글퍼지는 마음인데 다행입니다.

먹을 것 지천으로 넘쳐나는 요즘 오이지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일까마는 서울 위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는 그래도 한여름 집어먹을 만한 건건이인지 더러 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곁에 있으면서 마음 나눌 수 있어 고마운 분들이니 이거라도 하면 좀 덜 미안하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은 못 잡수시는 할머니들이지만 우리에게 저항할 힘을 주셨고 그 힘 받아 평화비도 제작한 사람들, 그리고 빛 안 나는 자리에서 온갖 험담 들으면서도 곳곳하게 잘 지켜주는 눈 밝고 곳곳한 정의연 식구들은 제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이지 구좌는 유효할 겁니다.

PS. 1000 차 집회 때, 똑같이 김복동 할머니의 꾸짖음을 들었건만 어떤 이는 "일본 대사는 들어라!"고 기억합니다. 평생 소리 듣는 걸로 살아온 제 기억이 더 정확할 텐데 말이지요.

# 익명

수요시위는 내가 처음으로 참여해 본 집회였다. 동아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수요시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꽤나 자주, 짧지 않은 시간동안 수요일에는 종로 평화비 앞을 찾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집회에 대해 떠올린다면 깃발이 나부끼고, 굉장히 치열한 구호들이 오가는 결의 높은 자리라고 생각되기 마련이다. (아니면 나만 가지고 있는 집회에 대한 편견일수도...) 그러나 수요시위라는 공간은 어떤 때는 굉장히 치열한 투쟁의 공간이기도, 어떤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연대하는 평화의 공간이기도 했다.

나도 그렇고 수요시위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은 수요시위를 통해,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무엇인지, 반전평화라는 것은 무엇인지, 연대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보았을 것이다. 수요시위가 열릴 때, 평화로 거리는 다른 곳에서는 쉬이 이야기하기 어려운 반전평화, 인권이라는 가치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를 한 번쯤 고민해보게 하는 말 그대로 평화의 공간이 된다.

수요시위가 반전평화, 인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이 운동의 주체로서 곳곳이 그 자리에서 투쟁해 나갔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무수한 아픔들과 연대하며 끝끝내 인권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피해당사자에서 운동의 주체가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지금의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수요시위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투쟁들이 있었을지 감도 오지 않는다. 그 결에서 피해당사자들을 만나고 이들을 운동의 주체로, 운동가로서 이끌기까지 활동가들이 또 얼마나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해나갔을지 역시 감도 오지 않는 영역이다. 동아리 사무실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판넬 사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경들이랑 마주보며 시위를 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계신다. 그러한 투쟁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의 수요시위를 만들어 내었을 것이다.

어쨌든 수요시위에서 함께 했던 경험들은 지금의 내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만들고, 활동가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종종 내 삶에서 오는 고민이나 결정의 순간에 할머니들과 수요시위에서의 발언들이  
아른아른거릴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다.  
예전에 가끔 할머니들께 인사를 드리면 언제나 하셨던 말씀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었다. (특히 김복동 할머니가 자주 그러셨다.) 안타깝게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못했고, 데모꾼이 되는 길을 선택해버렸지만, 어찌되었든 할머니들께서 지향하셨던 가치들을  
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살아보고자 하니 그걸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 김경린

〈나와 수요시위 : 나를 바꿨던 그 날〉

대학생 수원평화나비 김경린

중학교 1학년 설날을 앞둔 추운 수요일, 엄마의 손을 잡고 처음 수요시위에 나갔다. 유모차를 타고 있는 아이, 교복을 맞춰 입고 온 고등학생, 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까지 추운 겨울임에도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시위는 어른들이 띠를 두르고 큰소리로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처음 만난 수요시위는 그동안 생각한 시위, 집회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살아가자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했고 학생들이 카드섹션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하라', '할머니 힘내세요' 등 다양한 문구가 적힌 팻말과 노란 나비를 흔들었다. 김복동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속상하다'며 "일본은 공식 사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추운 겨울에도 함께해주고 감사하다"고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날의 수요일은 나에게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키는 시작점이 됐다. 이전까지는

뉴스에 나오는 사회문제들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수요시위에서 직접 할머니를 뵈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수많은 시민을 보며 그동안 안일하게 살고 있었음을,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후 방학 때마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수요시위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었다. 그러나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에는

시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시민들이 몇 년간 목소리를 내고 할머니들이 역사적 증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눈을 막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피해자와 아픔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다짐했다.

중학교 3학년,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논문을 만들어 학교 학생들 앞에서 발표했다. 친구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들어 보기만 했지 잘 알지 못했다"며 "몰랐던 사실과 역사를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 2016년에는 수원시청 앞 '박근혜 퇴진 범국민대회 수원시민 촛불 전야제'에 참여해 발언하기도 했고 2017년 독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2013년 수요일, 그날의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사회문제를 외면하고 자신의 삶을 살기 급급했을지 모른다. 누군가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른 이들과 연대해 사회의 불의에 맞섰던 경험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14분 살아 계신 현시점, 과거 불의의 역사와 일본 정부에 맞서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내가 용기를 내고 불의를 마주했던 것처럼 더 많은 이들이 불의에 항의하고 함께 연대해주기를 바란다.

해외

# Yoonseo Lee 이윤서\_미국

## My Wednesday Demonstration: Who I Am

Everyday after dinner, my parents and I sit around the television and watch the Korean evening news. Because I do not have very many opportunities to come across Korean news channels living as a teenager in Texas, I enjoy this time of my day when I can sit down and learn about different incidents that are happening all the way across the world in my home country.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just like any other day, we were watching the evening news when a story that intrigued me came on. It was about a professor named John Mark Ramseyer, a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his claims regarding comfort women. I started to do my own research to find out more about the situation and the intensity of it. As I looked closer at the details, I was furious. There were countless claims that were false and invalid, and I was angry at myself for not being able to aid in spreading awareness and correcting the issue for people with wrong perceptions. I started to look for different activities that I can participate in when I came across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I soon learned that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are live streamed online.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going on for almost 30 years automatically pulled me in to take part. I participated in the streaming and watched previous live streams so that I can get to see for myself the effort people have been making for three decades to obtain justice. Seeing butterflies that seemed ready to take-off and the yellow wave of people made me realize that the weekly protest was not just a mere "protest." Wednesday held so much more meaning, enough to flip over my entire perspective of Wednesday being just another boring weekday. It was a day of bravery and courage, a day of criticism, and a day of struggle to correct the wrongs.

Every Wednesday meant something new- a new hope for the future, a new viewpoint, and a new fight. A day that was simply just the "middle of the week" was suddenly not so average anymore. It became a day full of contrary anticipation. In a way, it is a day of a new start, a new beginning to continue the fight to redress and revise the inaccurate claims that are constantly twisting our history.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day of

another confrontation towards the shameless Japanese government and their unwillingness to make a proper apology. Most importantly, Wednesday is a day of recognizing the past and making amends for the tragic events that have happened. I believe that without acknowledging the past, the future will not come. As Winston Churchill once said,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also provided me with a sense of identity. Our history defines who we are as well as the world we are living in. As a Korean teenager living in the United States, I often have to remind myself of where I come from, and where my culture lies. It is easy to forget these aspects of who I am when I am living as a minority thousand miles away from my home country. After educating myself on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Wednesday became a day of reminding myself of my roots and how that root reaches into my heart. The Wednesday Demonstration now deeply takes part in defining who I am, therefor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eaching the right history without sugar coating or twisting its truths. The Wednesday Demonstration symbolizes truth itself, and without the truth, I, myself, would not exist.

나와 수요시위: 나는 누구인가

매일 저녁식사를 한 후, 부모님과 저는 TV로 한국 뉴스를 찾아봅니다. 텍사스에 사는 청소년인 저는 한국 뉴스채널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세계 반대편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배우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올해 초, 평소와 같이 저녁 뉴스를 보던 중 흥미로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 마크 램지어라는 교수의 '위안부' 관련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혼자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갈수록 화가 났습니다.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제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정정하는 데 도움이 못 되고 있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알아보던 중, 수요시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수요시위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30여년 동안 이어진 시위라는 점이 저를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온라인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난 30여년 간 정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전 동영상도 챙겨보았습니다. 곧 날아갈 것만 같은 나비들과 노란 물결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며, 수요시위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요시위로 인해, 수요일은 더 이상 지루한 평일 중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수요일은 용기의 날, 비판의 날,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날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희망, 새로운 관점, 그리고 새로운 투쟁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습니다. '한 주의 중간'이었던 수요일이 더 이상 평범한 날이 아니라, 기대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 허위주장에 맞서고, 바로잡는 투쟁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죄하려 하지 않는 일본정부에 대해 맞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일은 과거를 기억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바로잡는 날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한 것처럼, 저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 하면, 미래는 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수요시위는 저에게 정체성을 심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려줍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 청소년으로서,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문화는 어떤 것인지 자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다 보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기 쉽습니다. 수요시위에 대해 배우면서, 나의 뿌리는 무엇이고,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수요일마다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시위는 이제 제 정체성에도 큰 부분이 되어, 진실을 미화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올바르게 교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요시위는 진실 그 자체입니다. 진실 없이는 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 松村徳子 마쓰무라 노리코\_일본

「おんま どう くれっそ！」

松村徳子（まつむらのりこ）

1992年に水曜デモがはじまったとき、私は20歳代最後の年で、2歳になる息子を育てていました。

当時、1991年の金学順さんのカミングアウトを契機に、「慰安婦」問題が広く報道されるようになり、テレビや新聞で見かけない日はないと思えるほどでした。私は高校教員なので、新聞記事を使って生徒たちに、「慰安婦」問題について考えさせることもありました。

また、私の住む奈良でも、「人権、平和、女性」などの課題に取り組む市民団体や労働組合などが連帯し、金学順さんの証言集会が開催されました。寒い季節、夜の集会でしたが、500人ほどの会場の座席がいっぱいになり、床に座り込んで参加している人もいました。仕事のあと、息子を保育所に迎えに行き、軽食を食べさせながら、金学順さんの証言を聞きました。2013年5月、金福童ハルモニと吉元玉ハルモニが、奈良に来て証言してくださったのもその会場でした。

私がおはじめて訪韓したのは1995年3月でした。水曜デモに参加したいと思いました。大使館まで歩いて行けるように、近くのホテルをとり、地図でしっかり見たつもりだったのに、たどり着く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言葉も文字も分からないのに、無謀でした。3月のソウルの寒さもその時はじめて知りました。風の吹くなか、息子の手を引いて信号待ちしていたら、今の私ぐらいの年の女性が近づいてきて、息子を指さして何か言っている。どうやら怒っているようでした。私が「分からない」というジェスチャーをすると、息子の前にしゃがみこみ、半開きになったコートのボタンを一番上までとめ、マフラーをきつく巻き直して、「これでよし！」というふうに、去っていきました。「こんなに寒い

のに、コートのボタンしっかりしめてあげなさい！！こどもが寒くてかわいそう！！本当に最近の若いおんまは！！！」と、言ったかどうかは分かりませんが、ソウルという大都会の真ん中で出会った情のあつさにただ驚きました。

数年後、奈良の夜間中学で学んでいた韓国人夫妻と知り合いになり、韓国に帰る時に「遊びに来てください。案内します」と言ってもらいました。水曜デモのことを話して約束をとりつけ、何年越しかでやっと念願のソウル日本大使館前に行くことができました。たいへん暑い日でしたが、たくさんのハルモニ方が参加されていました。こんなに暑いのに、胸がいっぱいになりました。でも、私はその後ろに自分が立っているものかどうか、逡巡してしまい、少し離れて水曜デモを見ていることしかできませんでした。今ならわかります。日本人である私が先頭に立って、日本大使館に抗議の声をあげるべきだと。でも、その時は、出来ませんでした。それから何度も、日本大使館前に行っては、そっと水曜デモを見ていました。

そして、やっと水曜デモに参加できた日。私は 40 歳代になり、もうとっくに息子の手を引く必要はなくなっていました。友人から「日本ではじめて、『慰安婦』問題の決議をあげた宝塚の人たちが、水曜デモに行つて劇をするらしいよ。一緒に参加しよう」と誘われ、参加することにしました。劇の内容はたしかこうでした。「市のイベントでチマチョゴリを着た生徒への民族差別発言があり、問題を認識した教員らによって、この問題について子どもたちが考え、認識を変えるよう、取り組まれていく」そして、教員の話聞いて、「おんま どうくれっそ！」「おかあちゃんも、（チマチョゴリや、それを着る朝鮮人のことを悪く）言ってたよ！」と言う小学生が、私の役でした。たった一つの台詞でしたが、ハルモニ方に見てもらうのですから、通じるのは難しくても、大きな声で言おうと練習しました。「おんま どうくれっそ！」日本の植民地主義は、国だけでなく、親から子、孫へと受け継がれ、日本軍性奴隷制度のような非人間的な行為を「可能」にして

しまった。その克服のために自分は何をするのかという、とても大事な問いかけの台詞だと思いました。なんとか自分の台詞を言い終えて、アピールのあと最後に参加者みんなで韓国独特の3回くり返すデモコールを日本大使館に向けて叫んだ経験は、何物にも代えがたい、私の節目になりました。

その日を契機に、「慰安婦」問題を共通点とした友人が日本にも韓国にも増えていきました。あれから何度も、日本軍「慰安婦」問題関西ネットワークの仲間たちと水曜集会に参加し、そのたびに出会いを重ねてきました。今は、コロナ感染症のために韓国に行けないし、日本国内でも心配なく集まるのが難しい状況ですが、だからこそ、安全に配慮しながらできることは何でもやろうと努力しているのが、日本軍「慰安婦」問題の活動家たちだと思います。各地の水曜集会を web で見て、「みんな頑張っている」と励まされます。その姿は、女性の人権、平和、連帯そのものです。

あの幼かった息子が親になり、授かった孫娘はもうすぐ4歳です。

未来への責任は私たちにあります。

子どもたちに平和な世界を。もし、誰かが被害を受けるようなことがあったとしても、その人が責めを負うことのない世界を。どんな暴力もいけない。

つないできた1500回の希望、希望、希望。

そんな言葉を反芻しながら、孫の手を引いて、平和路に立てる日を思っています。

"엄마도 그랬어!"

마쓰무라 노리코(松村 徳子)

1992년에 수요시위가 시작됐을 때 저는 2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었고 2살배기 아들을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널리 보도되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안 보이는 날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신문 기사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나라(奈良)에서도 '인권, 평화, 여성' 문제에 열성적인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이 연대해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운 계절 어느 저녁에 열린 집회였지만, 500석 정도 되는 장내 좌석이 가득했고 바닥에 앉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밥을 먹이면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2013년 5월 나라에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가 와서 증언하신 곳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95년 3월이었습니다.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대사관까지 걸어 갈 수 있게 근처 호텔을 예약했고 지도를 보고 분명히 길을 확인해 뒀지만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말도 글도 모르는 곳에서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서울의 3월 추위도 그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아들 손을 잡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되는 여성이 다가와 아들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니 아들 앞에 주저앉아 반쯤 열려진 코트 단추를 맨 위까지 잠그고 머플러를 단단히 다시 맨 뒤 "이제 됐다!"라는 듯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코트 단추를 제대로 잠가 줘야죠! 애가 추워서 어찌나! 하여간 요즘 젊은 사람들이란!" 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깊은 정을 느낀 것에 무척 놀랐습니다.

몇 년 뒤 나라의 야간 중학교 학생이었던 한국인 부부와 친해졌는데, 한국으로 귀국하던 날 "놀러 오세요. 안내할게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요시위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몇 년 후에 드디어 영원하던 서울 일본 대사관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몹시 더운 날이었는데, 많은 할머니께서 참여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나와 계신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뒤편에 제가 서도 되는지 망설이다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요시위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일본인인 제가 앞장서서 일본 대사관에 소리 높여 항의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이나 일본 대사관 앞으로 가서 가만히 수요시위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수요시위에 참가하게 된 날, 저는 40대가 되었고 이제 아들 손을 잡고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친구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 관련 결의를 통과시킨 다카라즈카 사람들이 수요시위에 가서 연극을 하나 봐요. 같이 가요."라고 해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가 주최한 행사에 한복을 입은 학생에 대한 민족차별 발언이 있었는데, 문제를 느낀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린이들이 생각해 보게 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한복이나 그걸 입은 사람들에게 대해 안 좋게) 말했어요!"라고 한 초등학생이 말하는데, 그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단 한 마디의 대사였지만, 할머니들께서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소리로 말하려고 연습했습니다. "엄마도 그랬어!" 일본의 식민지주의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자녀로, 손자손녀로 계승됐으며 일본군성노예제도와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제 대사를 잘 마쳤고 시위의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 모두가 함께 일본 대사관을 향해 한국적인 방식으로 구호를 세 번 반복해 외쳤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한 대목이 되었습니다.

그 날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를 공통의 관심사로 하는 친구들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늘어났습니다. 그 후 몇 번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의 동료들과 수요시위에 참가했고 그 때마다 만남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한국에 갈 수 없고 일본 국내에서도 마음 편히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활동가들은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안전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자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지에서 열리는 수요시위를 인터넷으로 보고 모두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여성의 인권, 평화, 연대 그 것이었습니다.

저의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되었고 손녀는 이제 곧 네 살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일 누군가가 피해를 겪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 사람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는 세상을.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계속 이어져 온 1500 회의 희망, 희망, 희망.

이런 말을 되새기며 손자 손을 잡고 함께 평화로에 설 날을 상상해 봅니다.

# 方清子 방청사\_일본

水曜デモ 1500回 エッセイ

=ハルモニたちが拓いた世界を引き継いでいきます=

ソウル日本大使館前水曜集会に参加されているハルモニたちに連帯しようとして、2005年10月から大阪駅前水曜集会がスタートしました。毎月第1水曜日19時から開催して今年で16年、180回を数えます。十数人から始まった水曜集会はその後毎回50~60人が参加、多い時は100人にもなりました。2009年頃から「在日特権を許さない会」の激しいヘイトスピーチや妨害が始まりました。これに警察権力が加担して解散させられたこともありました。悔しさに涙で抗議したことも1度や2度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そんな時に、ハルモニたちが雨の日も風の日も、照り付ける夏の暑さの中でも街頭に立ち続けた意味を考えました。民族解放から半世紀もの間、ハルモニたちは被害者でありながら誰にも被害を語れず、罪人のように生きてこられました。家父長制と構造的な女性差別が根付いた社会で、街頭に立ち続けること、被害を語ることはどれほど勇気のいることだったのでしょうか。隠された歴史の真実を明らかにしようと、性暴力被害を堂々と語る姿は私たちの胸を打ち、叱咤しました。

その後、ハルモニたちは水曜デモの場から飛び出し、世界各地を回りながら日本軍性奴隷制の実態を訴え、戦争のない平和な社会、女性や少女たちの尊厳が守られる社会の実現を訴え、人権活動家として世界を飛び回りました。

2017年アメリカで起こった「#MeToo」運動が瞬く間に拡がり、世界中で共感を得たこと背景には金学順ハルモニをはじめ、日本軍性奴隷制被害者たちの告発があったことを私たちは記憶します。

歴史の事実をあきらかにし、加害責任を問う訴えは 30 年の歳月を経て、多くの被害者が亡くなられた今なお続きます。加害者である日本政府が歴史を否定し、被害者を侮辱するという二次被害を繰り返しているからです。そればかりか、戦争によって二度と誰も同じ被害にあわないことを願い、訴えたことが無残に踏みにじられ、今も紛争地における女性への暴力や、現代社会における根深い女性蔑視と性暴力に苦しむ女性たちがいます。

水曜デモの現場で、当初被害者に向けられた無関心と冷たい視線は大きく変化し、被害者の声に耳を傾け、ともに学ぼうと若者・学生をはじめ全国各地から、時には日本をはじめ世界各地から人々が集まってきました。1000 回水曜集会の、「平和の少女像」建立時の怒涛のような人々の喊声と感動はまだ記憶に残っています。ところが、1500 回を迎える今日、水曜デモを妨害しようとする韓国保守勢力らの恥ずべき行為に対して毎回恥ずかしくて情けない気持ちでいっぱいになります。

そんなときも、いつも私たちに励まし、背中を押してくれたハルモニたちの姿を思い起しながら、日本での連帯行動もコロナ禍、休むことなく開催しています。

最後まであきらめることなく、希望を忘れないで、ハルモニたちが拓いた世界を世代をつないで引き継いでいきます。

2021 年 7 月 1 日

方清子（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関西ネットワーク）

수요시위 1500 차 에세이

= 할머니들이 열어 주신 세계를 계승해 가겠습니다 =

서울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계신 할머니들과 연대하고자, 2005년 10월부터 오사카역 앞에서의 수요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 수요일 19시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16년, 180차가 되었습니다. 수십 명으로 시작된 수요시위는 그 후로 매회 50~60명이 참가하며, 많을 때는 100명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무렵부터는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과격한 혐오발언과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경찰권력이 가담하여 저희를 해산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분한 마음에 눈물로 항의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할머니들이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햇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계속해서 길거리로 나가신 의미를 생각하였습니다. 민족해방으로부터 반세기 동안, 할머니들은 피해자이면서도 누구에게도 피해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살아오셨습니다. 가부장제와 구조적인 여성차별이 뿌리내린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길거리로 나서는 일, 피해를 이야기하는 일은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가려진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성폭력 피해를 당당히 이야기하는 모습은 저희들의 가슴을 울리고 질타하였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수요시위의 장에서부터 뛰어나와, 세계 각지를 돌며 일본군성노예제의 실태를 호소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 여성과 소녀들의 존엄이 보호받는 사회의 실현을 호소하며 인권활동가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 일어난 '#MeToo' 운동이 눈 깜짝할 사이에 확대되고 전 세계에 공감을 불러 일으키게 된 배경에는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고발이 있었음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명백히 하고 가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30년의 세월을 거쳐 많은 피해자 분들이 돌아가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두 번 다시 전쟁으로 인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고 호소한 일은 무참히 짓밟혀, 지금도 분쟁지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현대사회의 뿌리깊은 여성 멸시와 성폭력으로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처음 수요시위의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받았던 무관심과 차가운 시선은 크게 변화하여,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배우고자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때로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00차 수요시위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때의 노도와 같은 함성과 감동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500 차를 맞이하는 오늘날, 수요시위를 방해하려 하는 한국 보수세력들의 부끄러운 행위에  
매번 창피하고 한심스러운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러한 때에도 늘 저희를 격려하고 등을 밀어주신 할머니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일본에서의  
연대활동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쉬지 않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잊지 않으며, 할머니들이 열어 주신 세계를 세대를 이어  
계승해 가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방청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간사이네트워크)

<나와 수요시위> 에세이 공모

참가작 모음

초등

# 안시울

여성의 인권을 무심하게 여기고, 그 인권을 또 함부로 강간, 성폭행 등 그 일들을 견뎌 내셨을 때의 할머니들의 그 슬픔을 함께하고 싶어졌다. 또 더 이상 상처받으며 일어나는 범죄들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 일본의 '위안부'문제는 평화의 걸림돌이라고 느꼈다.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 상처와 슬픔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꿈이 피어날 당시에 강제로 끌려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강간, 성폭행이 계속되는 일에 사죄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계속 생겨나기를 바라고, 반드시 평화의 날이 와서 할머니들께도 평화의 기쁨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모두가 공평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권이며 이 인권은 너무나 소중한 인권은 모든 돈,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면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인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과 존중이 필요해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하며 마땅히 존중받아 마땅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격체이다.

그럼으로 이 '위안부' 문제도 여성의 인권을 무시당해 일어나 일이어서 소중한 인권은 모든 나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위안부'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요집회에 꼭! 무슨 바쁜 일이 있을 때에도 수요집회에 참여해야 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 서지완

옛날에 위안부할머니가 얼마나 힘 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말시간때 <나와 수요시위> 영상에서 위안부할머니들의 편지를 보면서 위안부 할머니에게 관심이 더 갔다. 그래서 전쟁을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다시 위안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와 수요시위>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생긴 것 같다.

배운 점: 사람들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될 것 같다.

평화란? 싸우지 않고 마음에 상처도 없이 사는 것이다.

평화 서약:

1. 친구를 괴롭게 하지 않기
2. 부모님 말씀 잘 듣기
3.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위안부 할머니들 굿!!



# 유단우

오늘 수요집회에 참여해 느낀 점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라들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또 알게 된 점은 수요집회가 무엇인지

소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들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게 되었다!

평화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친구랑 싸우지 않고 때리지 않는 것이고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동생이랑 안 싸우기 친구가 싫어하는 것

하지 않기 숙제를 잘 하기 인사 잘 하기 욕심 부리지 않기 때리지 않기

싫어하는 별명 부르지 않기. 등이 있다!

오늘 수요집회를 처음 봤는데 잘 이해가 되었고, 편지도 썼는데.

재미있었다!

# 유기찬

수요시위에 참여한 소감과 느낀 점은 일단 엄청난 것 같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좋은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코로나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훌륭하고 대단하다.

코로나만 없었어도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정말 아쉽다.

요새 학교에서 평화를 배우고 있는데 그때에는 평화롭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잘 지키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란 다툼이 없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배운 것들은 일제강점기때 힘들었을 위안부가 어땠는지 같은 것을 배웠다. 또 이때 내가 있었다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위안부 할머니에게 하고싶은 말>

할머니 그때 너무 힘들었지요?

이 말을 듣고 위로 되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멋진 분이예요.

그리고 좋은 분이예요.

# 권시현

느낀점:

아주 옛날 할머니들이 위안소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폭행한 것도 위안소에서 많은 할머니들을 죽인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더럽고 힘든 그 위안소에서 할머니들이 힘들게 나날을 보냈다는 게 정말 슬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전쟁이 나면 안됩니다!!!!!!!

또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 해야 합니다!!!

배운 점: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게 위안소에서 지냈는지 배웠다.

그리고 전쟁 때문에 일본 군인들이 할머니들을 위안소로 데려 간걸 배웠다. 또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을 폭행하고 죽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배웠다.

평화란?

1, 평화란 믿음이다.

2, 평화란 나눔이다

3, 평화란 사랑이다

<믿음>

남을 믿고 나를 믿어야 평화가 온다.

<나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평화가 온다.

<사랑>

남을 사랑하면 평화가 옵니다.

위안부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힘드신 거 압니다.

나중에 꼭 만나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못 만날 것 같네요ㅠ ㅠ

그래도 이 글을 꼭 보시고 기운 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할머니들은 위안소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셨나요?

가족들은 위안소에서 돌아온 할머니들을 알아보았나요?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파이팅!!!!!!

# 송지우

배운 점: 위안부가 힘들었다는 것, 위안부가 된 이유

평화란? 삶에서 행복, 재미, 즐거움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한 또는 인권이다.

옳지 않았던 점: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유롭지 않고 말하나 안 들었다고 죽이는 것이 옳지 않았다.

일본의 잘못된 점

1. 일본 나라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2. 사람을 개보다 못하게 대하는 점은 반드시 사과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3. 사람을 마음대로 죽인 점
4. 사람을 위생이 안 좋은데 가두어 둔 것
5. 죄 없는 사람을 납치한 것

# 박은우

늦잠자기, 엄마에게 짜증부리기, 놀기를 좋아하는 나는 그때 시대의 일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유도 알지 못했다.

잘 알지도 못 했으며 내 나이의 소녀들이 어떤 일을 겪었고,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도 몰랐다.

위안부에서 가장 어린 나이, 12살. 지금 내 나이이다. 나는 지금 5학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그때의 어린 소녀들은 전쟁통에 학교는커녕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몸과 마음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며 역사속에 묻혀야 했던 소녀들. 그들이 우리에게 받아야 할 손길은 동정이 아니라 이해와 치유의 손길이다.

그냥 불쌍하다, 안됐다, 힘들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살되어 역사속에 이름도 잊힌 소녀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세상에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

아직 자신의 나라가 꽃 같은 소녀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일본의 국민들에게도 알려져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진정한 치유의 손길이다.

평화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되게 노력해야한다.

할머니 힘내세요. 제가 못 피우신 꽃 피워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픔만 안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현재의 12살 소녀가 여전히 꽃 봉오리인 소녀에게...

# 김영은

나에게는 한 가지에 소원이 있다. 바로 일본군들이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날이 오는 게 내 소원이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날들이 지나갔는데도 일본군들은 사과를 안하고 오히려 일본 아이들에 교과서에는 조선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다고 하는 걸까... 할머니들에 마음을 알겠다. 약오르고 짜증 날 것 같다. 나도 그렇게 느껴진다. 수많은 그 할머니 분들에 고통스런 기억을 내가 없앨 순 없을까... 방법이 없지는 않다. 항상 그 분들에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꼬박꼬박 기다리고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그렇다고 일본을 너무 싫어하면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미안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일본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말아야 된다. 그래도 나는 언제나 할머니들에 편이다. 항상 할머니들이 버텨 주셔서 감사하다... 다시한번 할머니들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행복 가득한 삶 사시기를 바란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조지 산타야나

난 당신이 미안하다고 말해 주길 원하는 게 아녀요. 당신이 미안하다고 느끼는 것을 원하지...바바라 스피클러

해외

# Benjamin Cho 벤자민 조\_캐나다

My parents emigrated from Korea to Canada, both of them leaving behind all that they loved, all that they knew, and all that they built in hopes of providing a better life for my sister and myself. I was born and raised in Canada but ever since I was young my parents thought it to be crucial to retain elements of my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 So, even before learning English, or attending French-immersion kindergarten my mother taught me how to read, write, and speak Korean. My parents instilled in me not only the language but a pride in my motherland's history, heritage, and culture.

I visited Korea for the first time when I was in the third grade and we stayed with my maternal grandparents in Seoul. I remember being so fascinated with how I could feel so much fondness and attachment towards strangers, who up until then, I had never met. To most people, being with extended family is a normal occurrence. However, my parents left their entire families behind when they moved to Canada, so I did not have this luxury growing up. Although I knew how to read, write, and speak Korean, there was undoubtedly a language barrier between myself who only spoke Korean infrequently at home vs. my grandparents who were born and raised in Korea and only knew how to speak Korean. I desired so much to have deep conversations with my grandparents, wanting to ask about their lives, their experiences, and tap into their wealth of knowledge and insights. How I longed to be able to tell them in words how grateful I was to them for all of their sacrifices and how much I loved them, but communication was not always the easiest. While it was difficult to verbally say all that I wish I could say, I thought I could instead show them how I felt through my actions. Whether it would be massaging their legs and shoulders when they were tired, setting the table and cleaning up afterwards, or even holding groceries for them, I expressed everything that I wanted to say through what I did, hoping that they would understand what I was trying to tell them, and the thoughts and intentions behind my actions.

When I learned about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JMMS) system and the lived experiences of what these grandmas endured before, during, and even after World War II, just as I felt towards my grandparents, although I had never met them in real life, I felt an

unexplainable protection, care, and love for these grandmas as if they were my own. I see the grandmas as more than just victims of JMSS, I even see them as more than just survivors and social activists, we can never forget the individuality and mere humanity of every single one of the grandmas and how they were someone's daughter, sister, and loved one.

The sad reality we face is that due to old age, time is running out for many of the surviving grandmas. As someone who cares deeply about redress for the grandmas, I can't help but feel disappointed and frustrated with myself because I feel a sense of urgency yet I do not feel as though I am doing enough to bring about the necessary progress fast enough. I feel as though I have indirectly failed each grandma that has passed away who longed for a resolution and closure, but did not get one. Although I am not someone with significant power or influence, a small tangible step I can take is to participate and stand in solidarity at the Wednesday demonstration. However, for me personally, the Wednesday demonstration extends beyond standing in solidarity. What does my Wednesday demonstration mean to me? My Wednesday demonstration is the physical manifestation of what I wish to say to the grandmas, and what I wish to tell them is that I will dedicate my life to be an extension of everything that they have been, and are still fighting for, and just like with my grandparents when words cannot be directly communicated, I will express how I feel through my actions.

When I attend my first Wednesday demonstration in Korea, I will be reminded of the promise I kept to myself and to the grandmas; that I will use my life, time, and efforts to continue their works and pursuits until true justice, reconciliation, and peace is achieved.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매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국에서 사랑하고, 익숙하고, 이뤘던 것들을 뒤로하고 캐나다로 이민 오셨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나고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간직하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영어를 배우고 프랑스어 유치원을 다니기 전에 한국어로 읽고, 쓰고, 말하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유산, 문화 대한 자긍심도 심어 주셨습니다.

3학년이 되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서울에 계신 외가댁에 머물렀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낯선 친척들에게 호감과 정을 느낀다는 게 매우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친척들과 지내는 일은 평범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가족들을 모두 뒤로 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오셔서, 저는 친척들과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었지만 집에서만 가끔 한국어를 하는 저와 한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만 할 줄 아시는 조부모님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언어의 벽이 있었습니다. 조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여쭙보고, 그 경험과, 지혜와 슬기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조부모님이 하신 희생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말로 하기 힘들었지만, 행동으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피곤해하실 때 다리와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식사 준비와 정리를 하고, 장바구니를 들어드리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면서 조부모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해해주시길 바랬습니다.

일본군성노예제와 할머니들께서 2차 세계대전 동안과 그 전후로 겪은 경험들을 배우면서 저는 꼭 제 조부님에게 느끼는 사랑과 정을 할머니들에게도 느꼈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을 단순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단순한 생존자와 사회 운동가 이상으로 봅니다. 할머니 한 분 한 분 한 분의 개성과 단순한 인간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할머니들이 누군가의 딸, 자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슬픈 현실은 고령인 할머니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을 위한 정의를 깊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얼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면서도, 저 스스로가 할머니들에게 필요한 결과를 빨리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제해결을 바랬지만 끝내 연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큰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수요시위에 참여해서 연대하는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수요시위는 연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제가 조부모님과 그랬듯이, 수요시위는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할머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투쟁에 제 삶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수요시위에 참석하게 되면 제가 할머니들께 드린 약속을 떠올릴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와 화해,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 삶과 시간, 노력을 바쳐서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